

2016 가을

농업·농촌경제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동향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

2016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우병준 bjwoo@krei.re.kr 김라이 kimlai@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319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4
3. 소비	5
4. 물가	8
5. 금융·환율	14

II. 농촌경제 동향

1. 농촌 물가	17
2. 농림어업 취업자	20
3. 농축산물 수출입	22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27
2. 엽근채소	31
3. 양념채소	37
4. 과일	46
5. 과채	53
6. 축산	60

특별주제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동향	69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79

요 약

I. 일반경제 동향

- 2016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함.
- 2016년 3/4분기 민간소비는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 증가로 전분기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3.9% 증가함.
- 2016년 경제성장률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을 보이며 전년 동기대비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2017년에는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등으로 2.8% 수준의 성장률이 지속될 전망이다.
- 2016년 3/4분기 취업자수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함. 그러나, 제조업은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업은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음.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함.
- 2016년 9월 소매판매는 백화점 매출액, 휘발유·경유 판매량, 카드 승인액 등이 증가함. 소비심리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1.0% 감소하고 전월과 비슷함.
- 2016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0.8% 상승하는데 그쳐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고온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채소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3.8% 상승함.
- 2016년 8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대비 1.1%, 광의통화(M2)는 1.2% 증가함.
- 2016년 9월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지표 발표 영향으로 반등하여 단기와 장기 모두 상승함.
- 2016년 3/4분기 원/달러, 원/유로, 원/위안 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원/100엔 환율은 소폭 상승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6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0.2%, 6.7% 하락함.
 -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비중이 가장 큰 미곡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11.4%, 2.4% 하락함. 채소는 전분기 대비 5.9%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보다는 7.4% 상승함. 과실은 전년 동기대비 1.8% 상승하였으나, 사과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전년 동기보다는 31.6% 하락함. 축산물에는 모든 축종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4.1%, 2.2% 상승함.
- 2016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0.2%, 0.5% 상승함.
 - 농업용품지수 중 가축류는 전년 동기대비 상승하였으나, 비료, 영농광열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업용품 가격이 하락하여 전년 동기대비 1.6% 하락함. 농촌임료금지수는 농업노동임금과 농기계 임차료 상승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3.9%, 0.6% 상승함. 농업투입재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2% 하락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0.4% 상승함.
- 2016년 3/4분기 농업경영조건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1%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7.0%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과 농업투입재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모두 하락하였으나, 농업투입재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 농업경영조건은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5.4%, 0.4% 감소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5.7%, 1.5% 감소함.
- 2016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7.3%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2.0% 감소함.
 - 농산물 수출액은 과실류 수출액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8.7%, 임산물에는 10.5% 증가한 반면 축산물은 8.7% 감소함. 수입액은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부류에서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2% 감소함. 농산물은 0.2%, 축산물은 1.9%, 임산물은 7.5% 감소함.
- 2016년 3/4분기 순수입액은 모든 부류의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함.

Ⅲ. 특별주제

1.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동향

- 우리나라의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34억 5,957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수출대상국내 한국산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전년 동기 대비 달러 및 엔화의 강세로 수출여건이 개선되어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월별 농식품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1월과 4월에는 전년 대비 수출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5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상반기에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연초류, 기타조제농산품, 면류, 음료 등의 가공식품과 채소류와 과실류 등 신선 농산물임. 특히, 과실류와 연초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6%와 18.3% 증가하였고, 면류와 음료, 기타조제 농산품과 채소류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임. 반면, 과자류, 주류, 커피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9.5%, 14.5% 감소하였음.
- 2016년 상반기 우리나라 농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 중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임.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으로의 수출 비중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음. 對미국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한 3억 4,421만 달러임. 對아랍에미리트 농식품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39.1% 증가한 2억 1,800만 달러를 수출하였음. 對아랍에미리트의 수출 비중이 전년보다 2%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제 4의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해서는 수출시장에서 현지인들의 소비 증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최근 산업의 발전은 수요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대상국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시장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또한 현지 시장의 유통채널 다양화와 현지인 기호에 맞게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법 및 식품개발이 필요함.
- 하반기는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각 국의 보호무역 심화,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시장내 우리나라 농산물 소비위축 등의 수출 불안요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수출대상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부, 관련기관, 수출업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2.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농가소득은 2013년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이래 3년 연속('14년 1.0%, '15년 6.5%) 증가하여 농가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 농가소득 증가의 긍정적 현상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평균 농가 개념의 접근을 지양하고 농업의 규모화·전문화·고령화 및 영세농 집적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작용을 구분해 보기 위한 유형별 분석이 필요함.
- 경영주 연령 65세와 표준영농규모 2ha를 기준으로 구분한 농가 유형별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았음.
 - 그룹1 청장년 중대농: 평균 연령은 56세이고, 4~50대 농가가 75%로 앞으로도 농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임.
 - 그룹2 청장년 소농: 겸업 농가가 많고(2종 겸업농이 57% 이상) 귀농에 의한 신규 진입농, 1종 겸업, 2종 겸업 등 다양한 형태의 소농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그룹임.
 - 그룹3 고령 소농: 농가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룹으로 평균 연령이 74세로 영농 기반이 취약함.
 - 그룹4 고령 중대농: 평균 연령 71세의 고령 농가그룹으로 논벼농가의 비중이 높지만 아직 대규모의 농업생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60%가 후계자가 없는 상태임.
- 청장년 중대농 그룹에는 그간 구조개선 정책, 경쟁력강화 정책에 힘입은 농가가 많으나, 이 그룹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채가 많은 고위험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대책이 필요함.
- 고령 소농 그룹에 대해서는 기초보장과 같은 복지정책의 강화, 소규모 생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마을 공동 6차산업,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단위 정책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농기반이 약한 청장년 소농 그룹에 대해서는 농촌일자리 정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확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농가는 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생산기반이 튼튼한 고령 중대농 그룹에 대해서는 조직화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후계 승계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대책이 필요함.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²⁾

- 2016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였음.
 - 그러나 민간소비 개선 폭이 크지 않고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0.7% 성장하는 데 그쳐 4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률을 보임.
- 부문별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와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설비투자는 감소세로 전환됨.
 - 민간소비는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 증가로 전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였음.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3.9%, 전년 동기대비 11.9% 증가하였음.
 -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늘어났으나, 운송장비가 감소하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반면, 전년 동기대비 4.5% 감소하였음.
 -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이 늘어 전분기 대비 0.8%,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하였음.
 - 수입은 기계류, 거주자 국외소비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2.4%,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하였음.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라이 연구원(kimlai@krei.re.kr), 우병준 연구위원(bjwoo@krei.re.kr)이 작성하였음.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6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2016.10.25)」와 「2016년 하반기 경제 전망(2016.7.14.)」,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2016.10)」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2014	2015 ^P					2016 ^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G D P 성장률	3.3	0.8	0.8	0.4	1.2	0.7	0.5	0.8	0.7(2.7)
민간소비	2.0	0.8	0.8	-0.1	1.1	1.4	-0.2	1.0	0.5(2.6)
정부소비	1.8	0.9	0.5	0.9	1.3	1.0	1.3	0.1	1.4(4.0)
건설투자	3.1	2.1	5.5	1.8	3.3	-2.4	6.8	3.1	3.9(11.9)
설비투자	5.8	0.9	0.5	0.8	1.8	0.5	-7.4	2.8	-0.1(-4.5)
총 수 출	2.8	0.6	0.6	-0.1	-0.3	2.1	-1.1	1.1	0.8(2.9)
총 수 입	2.1	1.5	0.9	0.4	1.4	3.2	-3.1	2.1	2.4(4.6)

주 1. 2015^P, 2016^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경제활동별로 전분기 대비 제조업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건설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서비스업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함.
 - 제조업은 운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1.0% 감소하나,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함.
 - 서비스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이 늘어나면서 전분기 대비 1.0%, 전년 동기대비 2.8% 성장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2014	2015 ^P					2016 ^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농림어업	0.3	-1.3	3.7	-11.0	4.7	-2.6	6.5	-6.6	-0.9(-3.9)
제조업	0.5	0.6	0.4	0.9	0.4	0.7	-0.2	1.2	-1.0(0.7)
서비스업	0.8	0.7	0.7	0.2	1.1	0.7	0.5	0.6	1.0(2.8)
(도소매및음식숙박)	0.4	0.7	0.7	-0.4	0.9	1.7	0.2	0.9	0.2(3.1)
(금융및보험업)	1.7	1.2	1.4	2.3	2.1	-1.1	1.3	0.9	1.1(2.2)
(부동산및임대)	0.8	0.5	0.7	0.3	0.5	0.3	0.3	-0.2	1.2(1.6)
(보건및사회복지)	1.9	1.5	1.5	-1.0	2.2	3.2	2.3	0.2	5.0(11.1)

주 1. 2015^P, 2016^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16년 경제성장률(GDP)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을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할 전망(상반 3.0%→ 하반 2.4%)임. 2017년은 2016년 대비 2.9%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하반기에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출부문별로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상회하겠으나, 수출 기여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17년에는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등으로 2.9%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개선이 미흡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명목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실질 구매력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는 소비심리 개선을 지연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 등은 소비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내년 중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글로벌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 등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 추진, 제조업 부문의 가동률 하락 및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유인은 크지 않은 상황임.
-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주거용 건물 주택착공, 아파트 분양물량 등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축소됨에 따라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활발한 주택 수주 및 매매거래로 인해 둔화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음.
 - 비주거용 건물도 착공면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증가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 토목은 중앙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규모 축소로 내년 중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상품 수출은 세계교역 신장률의 점진적 회복 등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경제성장 전망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5	2016 ^{e)}			2017 ^{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6	3.0	2.4	2.7	2.6	3.1	2.9
민간소비	2.2	2.7	1.9	2.3	2.0	2.3	2.2
설비투자	5.3	-3.6	-0.6	-2.1	4.5	2.1	3.2
건설투자	3.9	10.1	3.9	6.7	23	3.6	3
상품수출	0.5	0.1	1.7	0.9	3.1	2.2	2.6
상품수입	2.0	0.6	0.1	0.3	3.0	1.1	2.1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6.7.14.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참고

2. 2016^{e)} 2017^{e)}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 고용³⁾

- 2016년 3/4분기 취업자수는 2,655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함.
 -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나, 작년 메르스 영향에 따른 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증가폭은 둔화됨. 제조업은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업은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음.
 - 상용직과 자영업자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임시 일용직은 감소세로 전환됨.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무급가족 종사자는 증가세로 전환됨.
 -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구직활동 증가로 고용증가세가 지속되어 취업자가 증가함.

3) 고용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6.9월 고용동향(2016.10.12.)」와 「최근경제동향(2016.10)」,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9월 고용동향(2016.10.12.)」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16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754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하였음.
 -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하였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부진 등이 고용 증가세를 제약하고 있음.
 - 일부업계의 파업 장기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었음.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14			2015			2016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경제활동인구	26,536	26,356	27,140	27,166	26,989	26,913	26,708	27,415	27,539	1.4
(경제활동참가율)	62.4	61.5	63.2	63.0	62.5	62.6	61.7	63.2	63.4	-
취 업 자	25,599	25,267	26,098	26,237	26,143	25,936	25,554	26,387	26,554	1.2
· 농 림 어 업	1,452	1,092	1,505	1,494	1,289	1,345	1,038	1,419	1,413	-5.4
· 광 공 업	4,343	4,428	4,479	4,525	4,566	4,500	4,561	4,522	4,458	-1.5
(제 조 업)	4,330	4,418	4,466	4,511	4,550	4,486	4,544	4,503	4,439	-1.6
· 건 설 업	1,796	1,756	1,857	1,844	1,835	1,823	1,748	1,829	1,882	2.1
· 도소매·음식숙박업	5,889	5,984	5,927	5,979	5,958	5,962	5,929	5,968	6,084	1.8
실 업 자	937	1,089	1042	929	845	976	1,153	1,028	985	6.0
실업률(계절조정)	-	3.6	3.8	3.6	3.5	-	3.8	3.7	3.8	5.6

자료: 통계청

3. 소비4)

- 2016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 3.3% 증가하였음.
- 2016년 8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1.2%)가 감소하였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4.7%),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8%)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월과 전년 동월대비 6.0% 증가함.
- 9월 소매판매는 백화점 매출액, 휘발유·경유 판매량, 카드 승인액 등이 증가함.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6.7)」와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1/4분기 가계 동향(2016.5.27)」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소 비 동 향

단위: %

	2015					2016 ^p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p	8월 ^p
민 간 소 비	-	1.5	1.7	2.2	3.3	2.2	3.3	-	-
소 매 판 매	3.9	2.2	3.4	3.6	6.1	4.6	6.2	4.4	6.0
(내 구 재) ¹	10.2	4.3	0.8	2.0	8.2	-6.3	7.6	-9.8	4.7
(준내구재) ²	-1.2	-2.0	-1.0	1.8	2.8	-2.0	2.2	0.7	-1.2
(비내구재) ³	2.5	0.6	1.2	0.7	0.3	2.6	0.4	0.7	1.8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6년 7월^p, 8월^p은 전망치임.

5. 민간소비와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이며,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는 전분기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기획재정부

- 2016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0만 6천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전년과 동일)함.
 - 근로소득이 1.9% 증가하였고 사업소득은 0.2%, 이전소득은 3.8% 증가하였으나, 이자소득 등이 줄어 재산소득은 9.8% 감소함.
 - 경상소득은 1.7% 증가한 반면, 비경상소득은 21.4% 감소함.
- 2016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28만 1천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실질기준 0.8% 감소)함.
 - 소비지출은 249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와 동일하고, 비소비지출은 78만 8천 원으로 0.1% 증가함.
 - 외식비, 치과 및 외래 의료비 증가, 자동차 구입 증가 등으로 음식·숙박(3.6%), 보건(3.7%), 교통(1.4%) 등은 증가하였음.
 - 반면, 식료품 및 가구·가전기기 등의 소비 감소, 도시가스요금 인하로 주거용 연료비 감소 등으로 식료품(-4.2%), 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5.1%), 주거수도광열(-2.0%) 등은 감소하였음.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소 득	3.4	5.0	2.8	3.0	2.4	1.6	2.6	2.9	0.7	0.9	0.8	0.8
(경상소득)	3.2	4.4	2.9	3.0	2.3	1.6	2.8	2.1	0.8	1.1	0.8	1.7
(비경상소득)	8.6	20.9	-0.4	2.2	8.1	1.6	-2.1	25.9	-4.7	-4.8	2.3	-21.4
소 비 지 출	2.8	4.4	3.1	3.3	0.9	0.5	0.0	0.7	-0.5	1.7	0.6	0.0
(식료품·비주류음료)	0.8	2.1	2.0	-0.9	0.1	0.8	2.3	2.0	2.7	-3.5	-0.6	-4.2
(의류·신발)	-0.1	-1.2	2.3	2.9	-2.9	-4.4	-5.3	-3.4	-3.5	-5.2	-1.8	-2.5
(교 통)	8.6	12.2	5.9	13.7	3.1	-3.7	-4.5	-4.4	-12.5	6.7	2.5	1.4
(교 육)	0.4	2.6	0.5	-1.1	-0.5	-0.4	-1.6	-1.6	-1.1	3.2	-0.4	-0.7
(음식·숙박)	4.7	6.1	4.9	5.2	3.3	1.4	3.8	0.3	0.4	1.1	2.2	3.6

자료: 통계청

- 2016년 2/4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32만 9천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2% 감소하였음.
- 가격하락 등으로 곡물 지출(12.6%)이 감소하였고, 당류 및 과자류(9.0%), 유제품 및 알(6.7%)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식료품 및 음식 소비지출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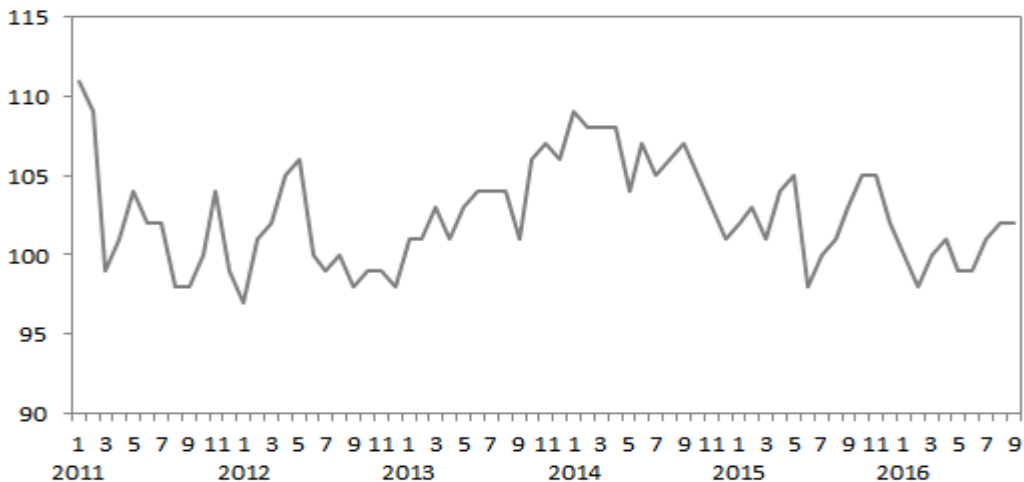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 2016년 9월 소비심리지수⁵⁾는 102로 전년 동월(103)대비 1.0% 감소하였고, 전월(102)과 동일함.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물가⁶⁾

- 2016년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0년 100을 기준)는 111.0로 전년 동기대비 0.8% 상승함.
 - 농축산물은 채소가격이 상승하였고, 석유류는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상승함.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나타냄.

6) 물가 부문은 기획재정부 「201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2016.10.5.)」, 통계청 「201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2016.10.5.)」, 한국은행 「2016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2016.10.19.)」와 「2016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2016.10.14.)」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상품 부문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0.6% 하락하였으나, 서비스물가지수는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등의 상승으로 전년 동기대비 1.9% 상승함.
 - 신선 채소를 중심으로 금년 여름 고온 및 가뭄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3.8% 상승하였으며, 유가하락으로 석유류와 전기·수도·가스 가격은 하락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총 지 수	109.8 (0.7)	109.4 (0.6)	109.7 (0.5)	110.1 (0.6)	110.1 (1.1)	110.5 (1.0)	110.7 (0.9)	111.0 (0.8)
상 품	110.3 (-0.7)	110.6 (-0.6)	110.5 (-0.8)	110.3 (-1.0)	109.9 (-0.4)	109.9 (-0.6)	109.5 (-0.9)	109.6 (-0.6)
농축수산물	111.1 (2.0)	110.1 (0.4)	111.4 (2.1)	112.9 (2.9)	109.8 (2.5)	115.1 (4.5)	113.6 (2.0)	117.2 (3.8)
공업 제품	110.0 (-0.2)	109.9 (-0.5)	110.2 (-0.4)	110.3 (-0.2)	109.7 (0.0)	109.2 (-0.6)	109.6 (-0.6)	109.9 (-0.3)
서 비 스	109.4 (1.8)	108.4 (1.5)	109.1 (1.6)	109.9 (1.9)	110.2 (2.2)	111.0 (2.4)	111.5 (2.2)	112.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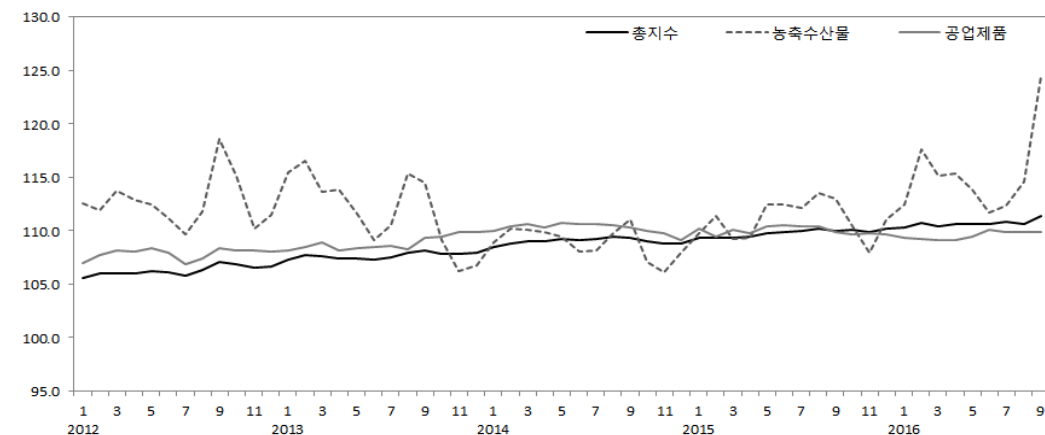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6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4로 전년 동월대비 1.2% 상승함.
 - 농축수산물은 폭염피해로 인한 채소류가격 상승으로 전월 대비 상승함. 석유류는 유가 하락으로 전월보다 하락하였으나, 전년 가격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락폭이 축소됨.
- 지출목적별로는 전월에 비해 식료품·비주류음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등은 상승, 오락·문화, 교통 등은 하락하였고, 의류·신발, 통신 등은 변동이 없음.

-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교육, 오락·문화,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등은 상승하였고, 주택·수도·전기·연료와 교통은 하락하였음.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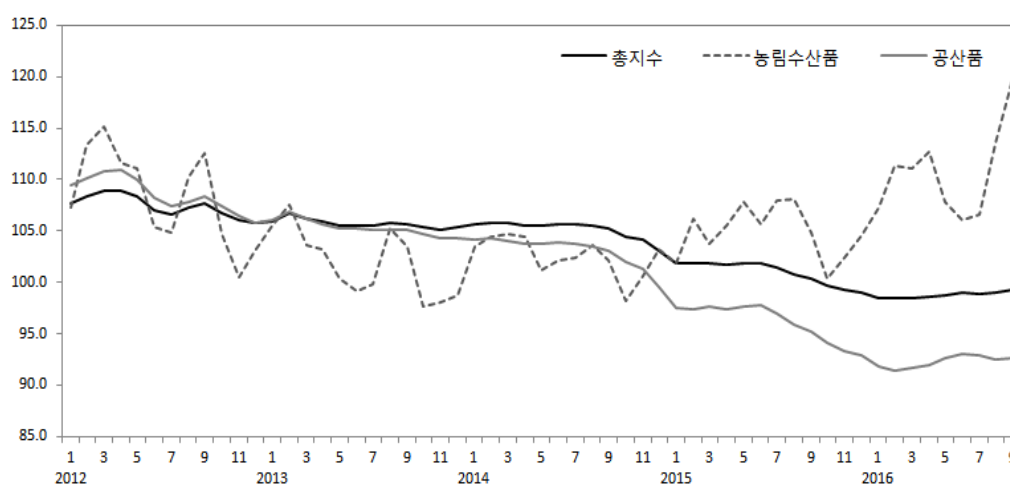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2015					2016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11.1	110.1	111.4	112.9	109.8	115.1	113.6	117.2	3.8	3.1
농산물	106.7	107.1	107.3	108.3	103.9	113.2	108.0	112.0	3.4	3.7
곡물	119.9	120.7	119.9	119.9	119.1	114.6	111.1	108.7	-9.3	-2.1
채소	93.2	94.6	92.4	96.1	89.6	111.0	101.4	112.9	17.5	11.3
-배추	61.5	43.6	74.1	79.0	49.4	70.7	104.7	143.0	81.1	36.6
-무	66.0	52.6	61.2	74.4	48.7	67.9	82.2	87.2	17.1	6.1
-양파	116.1	80.3	100.1	129.0	154.9	169.7	124.0	95.9	-25.6	-22.6
-마늘	108.9	93.4	100.1	117.3	124.9	136.1	154.1	142.1	21.2	-7.7
-파	81.2	68.1	83.4	91.7	81.8	109.9	89.2	82.5	-10.0	-7.6
과실	106.1	104.6	109.0	107.8	102.9	105.5	105.3	104.1	-3.4	-1.1
축산물	114.9	110.5	114.6	118.8	115.5	115.1	118.2	122.6	3.3	3.8
수산물	116.2	117.3	116.7	114.2	116.5	118.9	121.4	121.3	6.3	0.0

자료: 통계청

- 2016년 3/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17.2로 전년 동기대비 3.8% 상승하였으나, 전분기보다는 3.1% 하락함.
- －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4%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3.7% 하락함. 쌀값 하락으로 곡물류는 전년 동기보다 하락하였으나, 채소류는 배추, 무 등 고랭지채소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한국은행

-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증감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16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99.1로 전년 동기대비 1.8% 하락하였으나, 전분기보다는 0.2% 상승함.
- －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4분기는 배추, 상추 등 엽채류와 풋고추, 오이 등 과채류, 일부 양념류 등이 상승하여 전년과 전분기 대비 각각 5.9%, 4.1% 상승하였음.
- － 반면, 석탄 및 석유제품, 공산물 등은 상승하였으나, 제1차 금속제품 등은 하락하였음.

- 2016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78.1로 전분기 대비 2.3%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8.5% 하락함.
- 9월 수출물가지수는 78.0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1.1% 상승한 반면, 전년 동월대비 2.5% 하락함.
- 2016년 3/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05.4로 전년 동기대비 10.3% 상승함. 9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06.9로 전월 대비 0.7%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10.0% 상승함.
- 2016년 3/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78.0으로 전년 동기대비 8.6% 하락하였음. 9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석탄 및 석유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7% 상승한 반면, 전년 동월대비 2.5% 하락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총 지 수	83.5 (5.2)	83.6 (-7.8)	83.8 (-3.9)	85.4 (-1.9)	81.3 (-7.1)	81.4 (-2.6)	79.9 (-4.7)	78.1 (-8.5)	77.4 (-9.8)	78.0 (-8.3)
농림수산물	91.5 (-0.3)	90.5 (-2.4)	88.5 (-1.8)	95.5 (3.5)	91.8 (-0.3)	98.7 (9.1)	101.7 (14.9)	105.4 (10.3)	107.7 (12.5)	106.9 (10.0)
농 산 물	145.0 (-1.5)	142.1 (-6.9)	140.8 (-7.2)	153.7 (4.0)	146.7 (7.4)	145.6 (2.5)	143.2 (1.7)	159.7 (3.9)	169.3 (7.9)	168.6 (6.9)
공 산 품	83.5 (-5.2)	83.5 (-7.9)	83.8 (-3.9)	85.3 (-1.9)	81.2 (-7.1)	81.3 (-2.6)	79.8 (-4.8)	78.0 (-8.6)	77.3 (-9.8)	77.9 (-8.4)

주: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2016년 3/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75.0으로 전분기 대비 2.3%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7.7% 하락하였음.

- 2016년 9월 수입물가지수는 74.6으로 광산물 및 석탄, 석유제품 상승으로 전월 대비 0.1% 상승하였고, 전년 동월대비 7.7% 하락하였음.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5%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2.9% 하락함.
 - 원재료의 경우,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9% 상승하였으며,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0.1%, 0.5%, 0.2% 하락함.
- 2016년 6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90.6로 옥수수, 쇠고기 등의 품목 하락으로 전년 동월대비 5.2% 하락하였음.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총 지 수	80.4 (-15.3)	81.6 (-18.2)	81.4 (-15.2)	81.3 (-13.6)	77.2 (-14.1)	75.8 (-7.1)	76.8 (-5.7)	75.0 (-7.7)	74.5 (-8.4)	74.6 (-7.7)
농림수산물	94.1 (-4.9)	96.9 (-2.0)	92.6 (-6.9)	95.2 (-1.9)	91.7 (-8.7)	93.2 (-3.8)	93.1 (0.5)	91.5 (-3.9)	91.2 (-4.9)	90.6 (-5.2)
농 산 물	85.0 (-7.1)	87.4 (-7.4)	84 (-9.6)	86.3 (-1.7)	82.2 (-9.6)	82.5 (-5.6)	82.1 (-2.3)	79.9 (-7.4)	79.5 (-8.2)	78.7 (-8.4)
축 산 물	115.0 (-4.9)	120.7 (4.6)	111.9 (-5.7)	115 (-5.9)	112.3 (-11.7)	113.3 (-6.1)	113.3 (1.3)	114.3 (-0.6)	113.9 (-2.1)	114.7 (-2.2)
공 산 품	83.8 (-5.8)	83.5 (-9.4)	83.3 (-6.0)	85.5 (-2.6)	82.9 (-5.4)	84.0 (0.6)	83.3 (0.0)	81.0 (-5.3)	54.7 (-16.6)	55.4 (-14.2)

주: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5. 금융·환율⁷⁾

- 2016년 8월중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월대비 13.0%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1.1% 증가)함.
- 2016년 8월중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대비 7.2%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1.2%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요구불예금, MMF, 2년 미만 금전신탁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제주체별로는 기업 및 기타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대비 8.0% 증가함(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1.1% 증가).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대비)

	2015				2016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M1 ¹	21.4	21.5	20.6	19.6	20.7	19.4	18.8	18.0	16.2	15.9	13.8	13.0
M2 ²	9.4	8.8	7.7	7.5	8.1	8.3	7.8	7.0	6.7	7.1	6.9	7.2
Lf ³	10.5	10.2	9.2	8.9	8.9	8.9	8.6	8.0	7.7	7.9	7.6	8.0
본원통화 ⁴	20.1	17.3	18.8	16.3	15.9	15.8	14.6	17.3	15.5	14.4	11.4	14.1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6년 9월 국고채 금리는 중순 이후 하락하였으나, 10월 들어 상승함.
 - 국고채(3년)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동결 결정 등으로 9월 중순 이후 하락하였다가 10월 들어 일부 국내외 경제지표 발표 영향으로 반등함.
 - 회사채금리는 우량물 및 비우량물 모두 상당 폭 상승함.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16년 8월중 통화 및 유동성(2016.10.13.)」와 「2016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2016.10.12.)」, 「2016년 3/4분기 외환시장 동향(2016.10.20.)」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단기시장금리의 경우 통안증권(91일) 및 은행채(3개월) 금리는 상승한 반면 CD(91일)금리는 8월말 수준을 유지함.

금리동향

단위: %

	2015			2016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국고채(3년)	1.63	1.75	1.72	1.63	1.47	1.50	1.47	1.46	1.33	1.22	1.24	1.31
회사채 ¹	1.48	1.49	1.48	1.49	1.49	1.49	1.49	1.49	1.28	1.23	1.23	1.24
CD유통수익률(91일)	1.58	1.59	1.67	1.67	1.64	1.63	1.61	1.58	1.43	1.36	1.35	1.34
콜금리 ²	1.96	2.12	2.14	2.09	1.95	1.98	1.94	1.91	1.79	1.65	1.65	1.70

주 1.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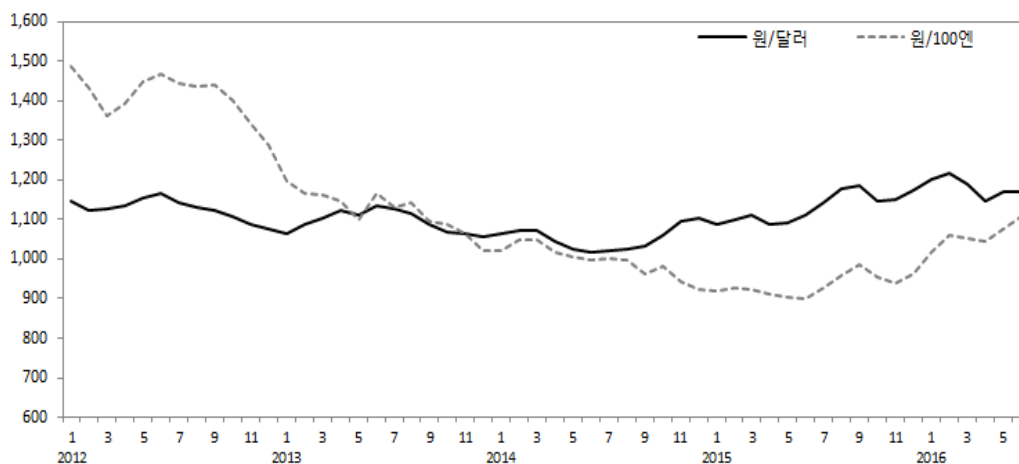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1,121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42원 하락하였으나, 원/100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19원 상승한 1,095원 임.
 - 2016년 3/4분기 원/유로 환율 및 원/위안 환율 모두 하락함.
- 2016년 9월 원/달러 환율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며, 원/100엔 환율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함.
 - 9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07원으로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연중 최저인 1,090원까지 하락한 후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반등하였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점진적 금리인상 기대 등으로 다시 하락하였음.

원화 환율 동향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원/달러	1,131	1,100	1,098	1,168	1,158	1,201	1,163	1,121	1,112	1,107
원/100엔	935	923	905	956	953	1,043	1,076	1,095	1,098	1,087
원/유로	1,255	1,239	1,214	1,299	1,268	1,325	1,313	1,251	1,246	1,241
원/위안	180	176	177	185	181	183	178	168	167	166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Ⅱ. 농촌경제 동향⁸⁾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촌 물가

1.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16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7.3으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0.2%, 6.7% 하락함.
 - － 채소, 과일, 축산류는 전년 동기보다 상승한 반면, 곡물류는 전년 동기보다 하락함.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7.9로 가중치가 가장 큰 미곡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11.4%, 2.4% 하락함.
 - － 미곡은 일반미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11.7% 하락함.
 - － 두류/잡곡은 김정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7.7% 상승함.
 - － 서류는 감자, 고구마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2.5% 하락함.
- 채소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0.0으로 전년 동기보다 7.4%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5.9% 하락함.
 - － 엽채류는 배추, 양배추를 비롯한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57.4%, 17.2% 상승함.
 - － 근채류는 무, 당근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25.9% 상승함.
 - － 조미채류는 마늘, 풋고추 등이 상승하였으나, 고추, 양파, 생강 등이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15.9% 하락함.

8)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라이 연구원(kimlai@krei.re.kr), 우병준 연구위원(bjwoo@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과채류는 딸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16.0% 상승함.
- 과실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6.9로 사과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전년 동기보다 1.8% 상승한 반면, 전분기 대비 31.6% 하락함.
-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7.3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4.1%, 2.2% 상승함.
- 가축은 육우, 오리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7.5%, 0.3% 상승함.
- 기타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0.1으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0.9%, 26.4% 상승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0년=100)

	가중치	2015			2016		등락률(%)	
		연간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13.8	116.1	107.5	115.0	107.3	-0.2	-6.7
곡물	280.1	109.6	109.9	110.5	100.3	97.9	-11.4	-2.4
-미곡	234.3	112.7	111.9	115.0	101.0	101.6	-11.7	0.6
-맥류	5.5	144.0	143.3	144.3	146.3	135.5	-6.1	-7.4
-두류/잡곡	23.9	73.3	74.9	60.9	81.7	56.2	-7.7	-31.2
-서류	16.4	106.9	120.5	107.1	102.8	93.7	-12.5	-8.9
청과물	406.5	121.3	129.3	100.4	128.2	105.7	5.3	-17.6
-채소	268.9	103.2	108.6	93.1	106.3	100.0	7.4	-5.9
-과실	137.6	156.6	169.6	114.8	170.9	116.9	1.8	-31.6
축산물	252.6	107.3	106.6	112.7	114.8	117.3	4.1	2.2
-가축	185.1	104.2	101.4	112.1	120.1	120.5	7.5	0.3
-유란	67.5	115.9	120.8	114.4	100.2	108.7	-5.0	8.5
기타농산물	60.8	110.9	96.8	119.0	95.0	120.1	0.9	26.4
-특용작물	42.4	120.2	100.9	136.8	98.2	137.5	0.5	40.0
-화훼	15.3	89.5	87.0	75.4	88.3	79.0	4.8	-10.5
-부산물	3.0	88.6	90.0	90.0	84.3	84.3	-6.3	0.0

자료: 통계청

1.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6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9.9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0.2%, 0.5% 상승함.
- 농업용품지수는 106.7로 전년 동기대비 1.6% 하락하였으나, 전분기보다는 0.6% 상승함.
 - 가축은 전년 동기대비 16.6% 상승하였으나, 비료와 영농광열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업용품 가격은 하락함.
- 농촌임료금지수는 141.1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각각 3.9%, 0.6% 상승함.
 - 농업노동임금은 전년 동기대비 4.0% 상승하였고, 농기계 임차료는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0년=100)

	가중치	2015			2016		등락률(%)	
		연간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9.0	109.1	109.7	109.4	109.9	0.2	0.5
가계용품	576.0	108.1	108.1	108.5	109.0	109.4	0.8	0.4
농업용품	376.9	107.3	107.4	108.4	106.1	106.7	-1.6	0.6
–종자	29.3	139.3	139.2	139.6	133.8	133.5	-4.4	-0.2
–비료	39.0	80.1	80.1	80.1	63.5	63.5	-20.7	0.0
–농약	29.9	124.2	124.2	124.2	123.3	123.3	-0.7	0.0
–농기구	64.0	119.5	119.5	119.5	119.5	119.5	0.0	0.0
–영농광열	26.7	85.3	87.8	86.8	69.1	73.3	-15.6	6.1
–가축	51.3	101.6	101.1	111.9	128.4	130.5	16.6	1.6
–사료	125.0	106.0	106.0	104.8	101.7	101.7	-3.0	0.0
–영농자재	11.7	95.8	97.0	94.6	96.2	96.2	1.7	0.0
농촌임료금	47.1	134.6	135.5	135.8	140.2	141.1	3.9	0.6
–농업노동임금	44.9	135.2	136.2	136.4	141.0	141.9	4.0	0.6
–농기계임차료	2.2	122.5	122.6	123.4	123.4	124.0	0.5	0.5

자료: 통계청

1.3. 농업경영조건지수

-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16년 3/4분기 농업 투입재가격지수는 107.8로 전년 동기보다 3.2% 하락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0.4% 상승함.
- 2016년 3/4분기 농업경영조건지수는 99.6으로 전년 동기보다 3.1% 상승한 반면 전분기 대비 7.0%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과 농업투입재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모두 하락하였으나, 농업투입재가격지수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 농업경영조건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은 하락하였고, 투입재 가격은 소폭 상승하면서 전분기에 비해서는 농가경영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농업경영조건지수

	2015		2016		동락률(%)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16.1	107.5	115	107.3	-0.2	-6.7
농업투입재가격(B)	111.8	111.3	107.4	107.8	-3.2	0.4
농업경영조건(A/B×100)	103.8	96.6	107.1	99.6	3.1	-7.0

주: 농가투입재가격은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임.

2. 농림어업 취업자

- 2016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1만 3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하고, 전분기 대비 0.4% 감소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26만 3천명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5.7%, 1.5% 감소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3.8% 감소한 80만 2천 명이었고, 여성은 7.6% 감소한 61만 1천 명임.

- 농가 취업자수는 186만 4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7% 감소한 반면, 전분기 대비 9.1%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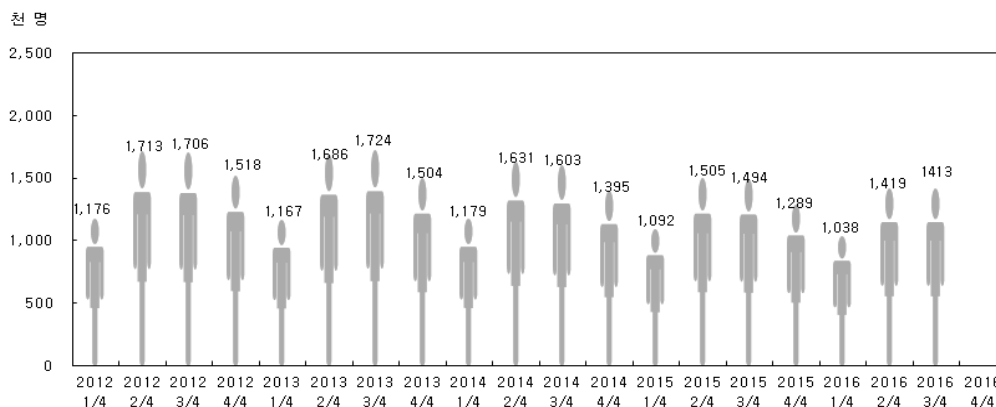
단위: 천명

		2015		2016		증감률(%)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업자	전산업	26,098	26,237	26,387	26,264	0.1	-0.5
	(계절조정)	25,760	25,971	26,081	26,282	1.2	0.8
	농림어업	1,505	1,494	1,419	1,413	-5.4	-0.4
	(계절조정)	1,362	1,339	1,282	1,263	-5.7	-1.5
	남성	842	834	804	802	-3.8	-0.2
	여성	663	661	615	611	-7.6	-0.7
	농가	1,901	1,878	1,708	1,864	-0.7	9.1
	농가남성	1,062	1,037	953	1,025	-1.2	7.6
	농가여성	839	841	755	840	-0.1	11.3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6년 2/4분기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3/4분기에 접어들면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3. 농축산물 수출입

3.1. 수출 동향

- 2016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물량은 97만 7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함.
- 축산물을 제외하고 농산물과 임산물 수출량이 증가하였으며, 농산물은 전년 동기대비 5.7%, 임산물은 10.8%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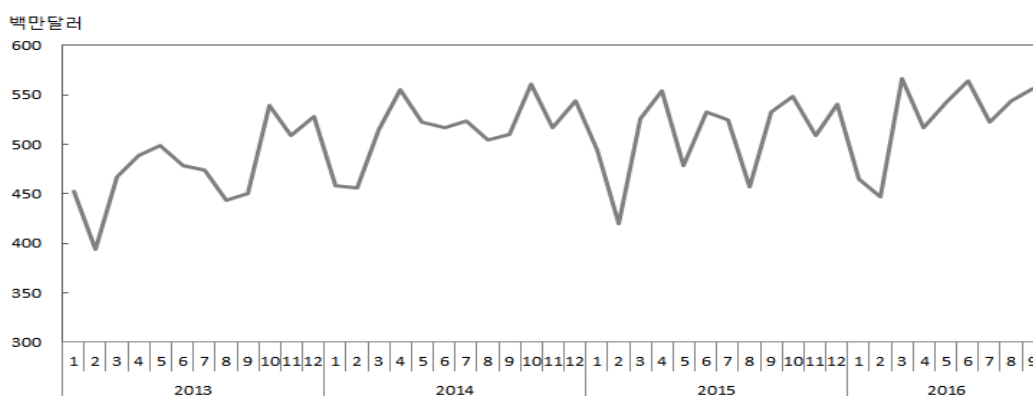
구	분	2015				2016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2/4		3/4		2/4		3/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953	1,561	918	1,511	1,015	1,624	977	1,622	6.4	7.3
	농산물	727	1,329	681	1,280	773	1,401	720	1,391	5.7	8.7
	－곡류	16	9	15	10	9	8	9	8	-35.9	-15.5
	－과실류	28	42	30	56	32	57	34	77	16.5	36.6
	－채소류	24	73	30	77	35	86	28	78	-5.9	1.2
	축산물	30	123	31	126	30	115	28	115	-8.5	-8.7
	－포유육류	1	6	1	5	1	5	1	7	22.0	40.1
	－가금육류	8	12	7	11	8	10	6	8	-13.1	-25.0
	－낙농품	9	40	21	112	9	42	21	112	-0.1	-0.2
	임산물	196	109	207	105	212	108	229	116	10.8	10.5
수 산 물		193	529	156	472	162	563	161	567	3.0	20.2
전 체		1,146	2,089	1,075	1,983	1,176	2,187	1,138	2,189	5.9	10.4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6년 3/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6억 2,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함.
- 농산물은 전년 동기대비 8.7%, 임산물은 10.5%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은 8.7% 감소하였음.
- 농산물 중 곡류는 보리와 옥수수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15.5% 감소하였음. 채소류 수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과실류는 배, 기타감귤류 등 수출액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36.6% 증가하였음.

- 축산물 수출액은 포유육류가 40.1% 증가하였으나, 가금육류는 25.0% 하락하였고, 낙농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 2016년 9월 수출액은 5억 5,61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4.5%, 전월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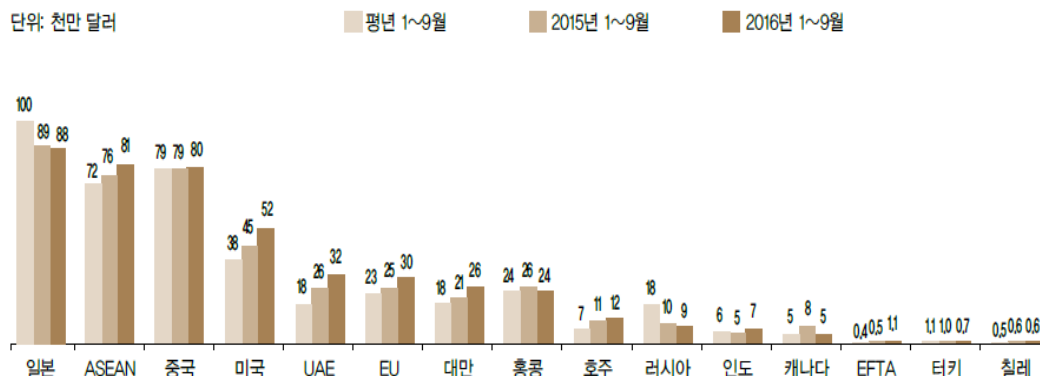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6년 9월까지 ASEAN, 미국, EU, 호주, 인도 등으로의 누적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對미국 수출액(17.2%)이 가장 크게 증가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년 3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6년 4/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97.2로 전분기보다 상승하였으나⁹⁾, 100 이하가 지속되면서 수출 개선에 대한 기대회복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 및 해운업계 침체 등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3.2. 수입 동향

- 2016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물량은 1,219만 1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0.6% 증가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부류에서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며, 농산물과 축산물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1%, 0.3% 증가하였고, 임산물은 2.7%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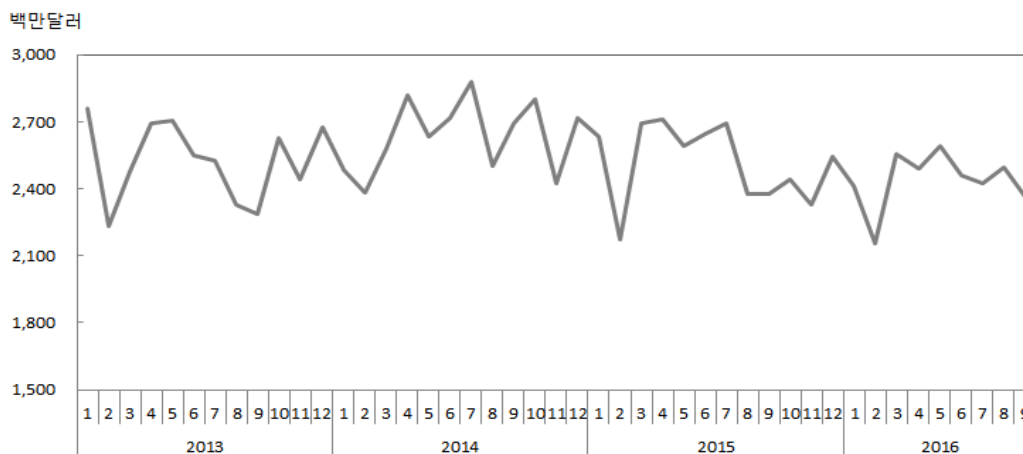
구 분	2015				2016				전년 동기대비	
	2/4		3/4		2/4		3/4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347	7,947	12,124	7,450	12,763	7,543	12,191	7,290	0.6	-2.2
농 산 물	8,218	4,784	7,900	4,236	8,515	4,558	8,069	4,229	2.1	-0.2
-곡류	3,721	981	3,773	963	3,838	858	3,706	802	-1.8	-16.7
-과실류	338	654	220	362	353	601	238	378	8.4	4.4
-채소류	237	214	266	227	250	224	253	232	-5.0	2.1
축 산 물	375	1,423	392	1,571	381	1,396	393	1,542	0.3	-1.9
-포유육류	206	850	233	949	221	883	241	970	3.4	2.2
-가금육류	29	80	34	89	35	73	32	68	-4.8	-23.7
-낙농품	58	206	59	196	62	188	66	193	11.5	-2.0
임 산 물	3,753	1,741	3,833	1,642	3,866	1,590	3,729	1,519	-2.7	-7.5
수 산 물	1,399	1,111	1,242	1,065	1,283	1,132	1,502	1,170	20.9	9.8
전 체	13,746	9,059	13,366	8,515	14,046	8,675	13,693	8,459	2.4	-0.7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9) 한국무역협회, '2016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2016.10.14).

- 2016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72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 감소함.
 -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 모든 부류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0.2%, 1.9%, 7.5% 감소함.
 - － 농산물 중 과실류와 채소류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1%, 4.4% 증가하였으나, 곡류는 16.7% 감소하면서 다른 부류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 2016년 9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3억 6,5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0.5% 감소하고, 전월 대비 5.3%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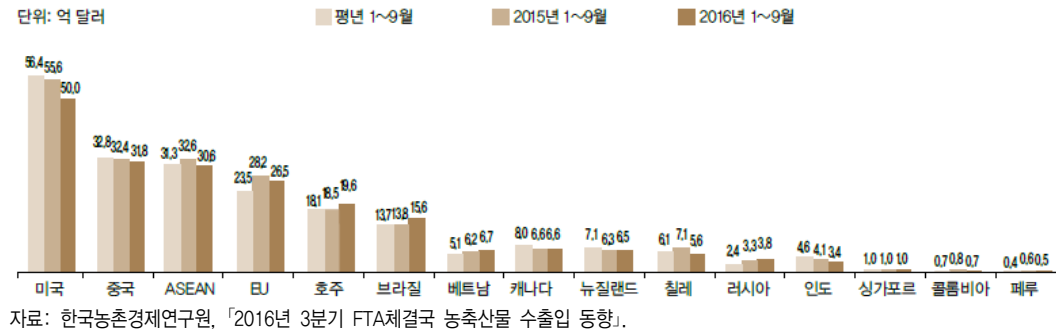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6년 9월까지 미국, 중국, ASEAN, EU, 캐나다, 칠레, 인도, 싱가포르, 콜롬비아, 페루 등으로부터의 농축산물 누적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였으며, 그중 미국산 수입액(-10.0%)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 － 곡물, 축산물, 임산물 누적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하였고, 과일, 채소, 가공식품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3.3. 순수입 동향

- 2016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물량은 1,121만 4천 톤으로 전년과 비슷함.
 - 농산물 순수입물량은 734만 9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함.
 - 축산물 순수입물량은 36만 5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함.
- 2016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56억 6,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함.
 - 모든 부류의 순수입액이 감소하였으며, 농산물은 4.0%, 축산물은 1.3%, 임산물은 8.7% 감소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5년 3/4분기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206	5,939	11,214	5,668	0.1	-4.6
농 산 물	7,219	2,956	7,349	2,838	1.8	-4.0
축 산 물	361	1,445	365	1,426	1.1	-1.3
임 산 물	3,626	1,538	3,500	1,403	-3.5	-8.7
수 산 물	1,086	593	1,341	602	23.5	1.6
전 체	12,291	6,532	12,555	6,270	2.1	-4.0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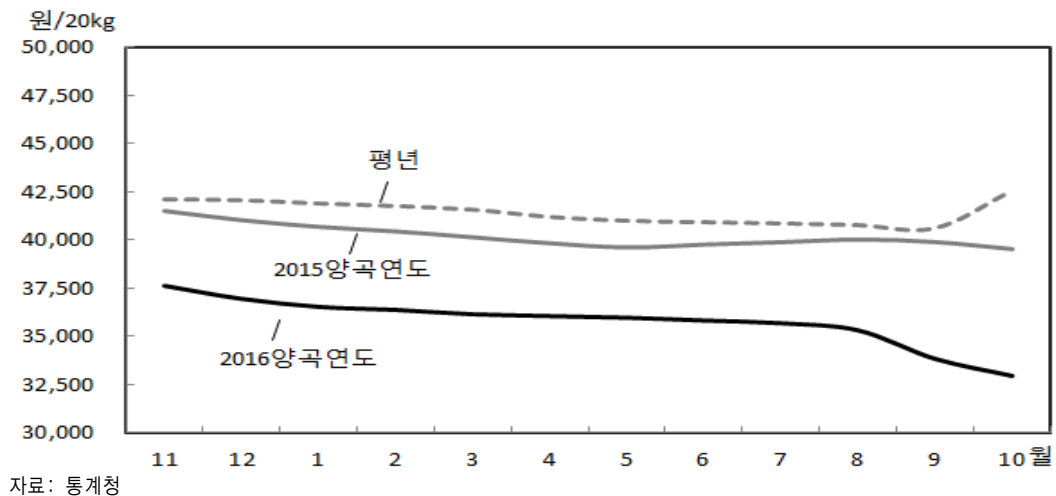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¹⁰⁾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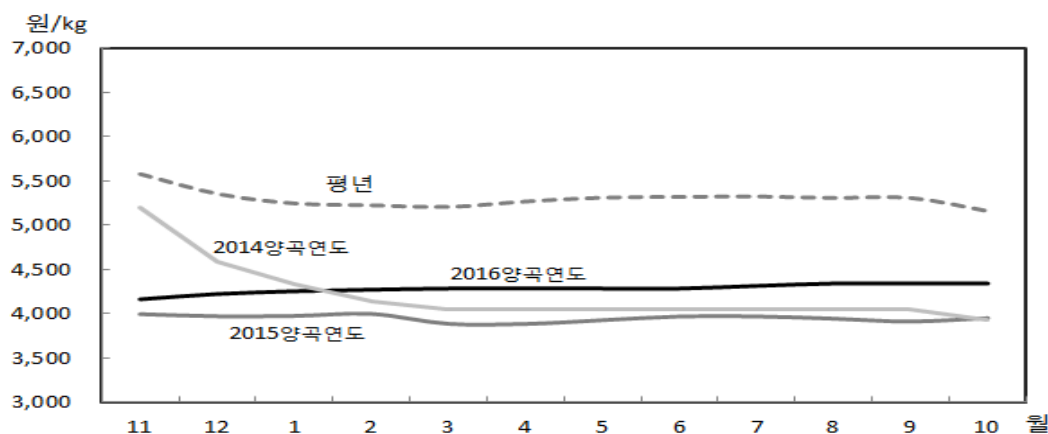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동향
 - 3월 말 정부의 추가 시장격리 실시 이후, 산지 쌀 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할인행사와 격리 이후 산지유통업체의 쌀 판매감소로 가격은 꾸준한 하락세 유지함.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태훈 연구위원(taehun@krei.re.kr), 김종진 연구위원(jkim@krei.re.kr), 승준호(jhseung@krei.re.kr), 김지연(jykim12@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손미연(sonmy@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채주호(whiteshark@krei.re.kr), 임권택(lkt20000@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8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20kg 기준 3만 5,322원으로 전년 대비 11.8%, 수확기 대비 7.1% 하락함.
- 2016년 벼 재배면적은 시설공사, 건물건축 등의 증가와 타 작물 전환을 권장하는 정부정책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한 77만 8,734ha임.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금년에도 풍년이 예상되었고, 구곡에 대한 재고부담과 연이은 역계절진폭 등으로 2016년산 산지 쌀 가격(10월 5일)은 3만 3,519원/20kg으로 전년 대비 17.9% 하락함.
 - 다만,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가 예년보다 빨라 전기 대비 가격 하락세는 전년보다 둔화되고 있음.
 - 쌀 예상생산량은 전년 대비 2.9% 감소, 정부매입은 증가, 벼 수발아 피해 및 구곡 시장격리 등으로 수확기 시장공급량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수확기에는 일시적으로 물량공급이 많고, 연이은 역계절진폭으로 시장에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어 당분간 수확기 쌀 가격은 보험세가 예상됨.

1.2. 콩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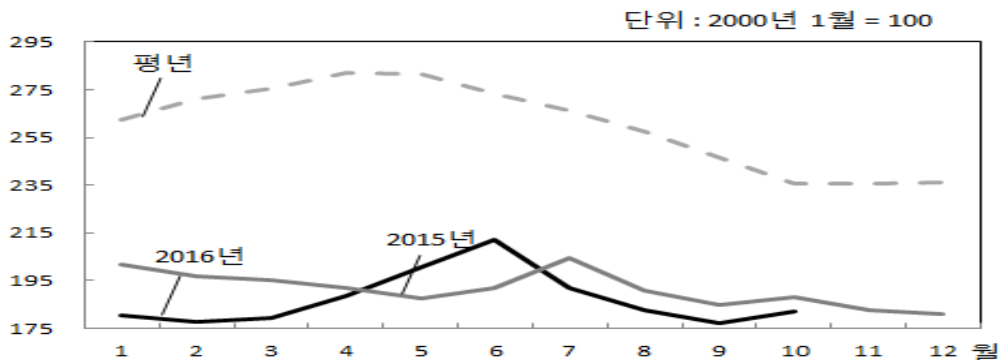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6년 3/4분기 동향
 - 경기침체로 국산 콩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고, 2013년~2015년산 정부 수매물량이 꾸준히 시장에 방출되면서 단경기 콩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함.
 - 2016년 9월 국산 콩 평균 도매가격은 4,343원/kg으로 전년 동기대비 11.0% 상승하였으나 평년 동기 대비 18.2% 낮은 수준임.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6년 10월 국산 콩 평균 도매가격은 4,343원/kg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9.9% 상승하였고 평년 동기대비 15.9% 하락함.
 - 2016년 논 타작물 재배확대 유도 등으로 파종면적은 늘었으나 가뭄으로 인한 폐작 및 작목전환 농가가 늘어나면서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국적인 가뭄 피해로 2016년산 단수가 전년보다 7.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 전체 콩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 전망은 수확기 국산 콩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1.3.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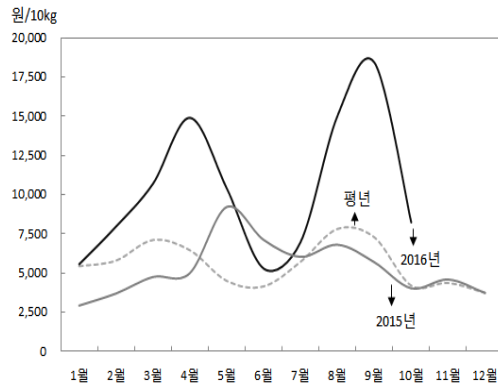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16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주요 곡물 주산지의 기상 호조로 인한 수급여건 개선과 세계 경제 저성장, 달러화 강세 및 저유가 지속 등으로 전분기 대비 8.2% 하락한 183.7임.
 - 주요 곡물들의 안정적인 수급상황과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에도 금융자본의 상품시장 유입 등 선물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함.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6년 10월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2016/17년 주요 곡물의 역대 최대 생산량 전망과 우호적인 거시경제 지표들에도 밀, 옥수수의 세계 재고량 하향 조정 및 10월 초 선물시장으로의 금융자본 유입으로 전월 대비 2.2% 상승한 181.0임.
 - 2016년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세계 경제 저성장, 달러화 강세, 주요 곡물 주산지의 작황 및 기상상황 호조로 전분기와 비슷한(0.1% 하락) 183.7로 전망됨.
 - 금년 겨울 라니냐 발생이 전망되나, 강도가 약할 것으로 추정되어 곡물 주산지의 이상기상으로 인한 선물가격 변동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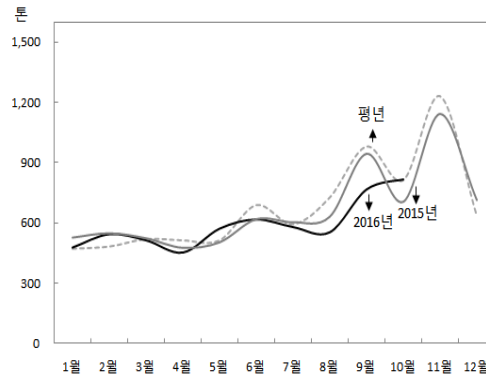
2. 엽근채소¹¹⁾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고랭지배추 단수와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17%, 95% 높았음.
- 월별 가격은 7월 6,910원으로 전년 및 평년 수준이었으나, 8월 고온으로 고랭지 배추가 피해를 입어 8월 15,020원, 9월 18,910원으로 높게 형성되었음.

* 3/4분기 가격: (금년) 13,400원/10kg, (전년) 6,170원/10kg, (평년) 6,870원/10kg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가을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7~12% 감소한 126만~134만 톤으로 전망됨.

* 가을배추 재배면적: 작년보다 3~5% 감소한 12,149~12,402ha

* 가을배추 단수: 전남 및 경남지역 9~10월 집중호우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작년보다 8% 감소한 10,403kg/10a

1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i@krei.re.kr), 노호영 전문연구원(rhy81@krei.re.kr), 한은수(sunny@krei.re.kr), 임호빈(hyobin@krei.re.kr), 최선우(kimlai@krei.re.kr), 이동규(cafe022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6년 4/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여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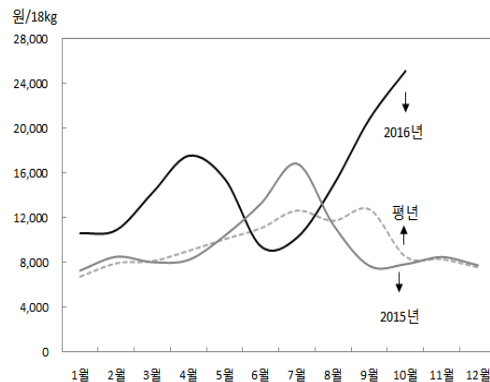
* 4/4분기 배추 출하량은 가을배추 및 겨울배추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겨울배추 재배면적

-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최근 출하기 가격이 낮아 작년 대비 2% 감소한 3,488ha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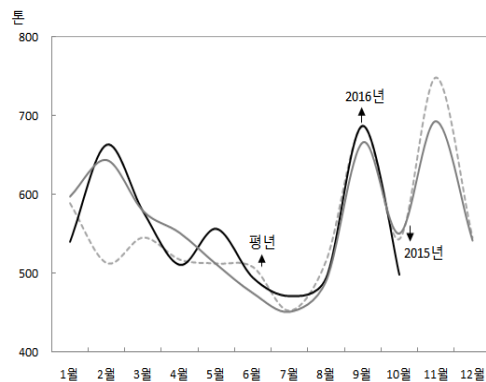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무 반입량 동향



- 2016년 3/4분기 동향

- 2/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보다 29% 높은 15,450원/18kg
- 7월 가격은 노지봄무 출하량 증가로 작년(16,830원)보다 낮은 10,150원이었으나, 8~9월 가격은 고랭지무 출하량 감소로 작년 동기(9,540원)보다 높은 18,1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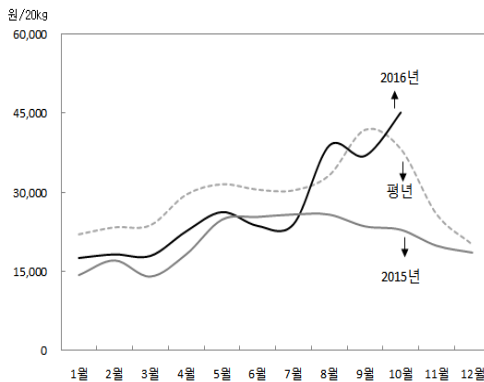
* (7월) 10,149원/18kg, (8월) 14,904원, (9월) 21,304원

* (2016 3/4분기) 15,452원/18kg, (2015 3/4분기) 11,969원, (평년 3/4분기) 12,14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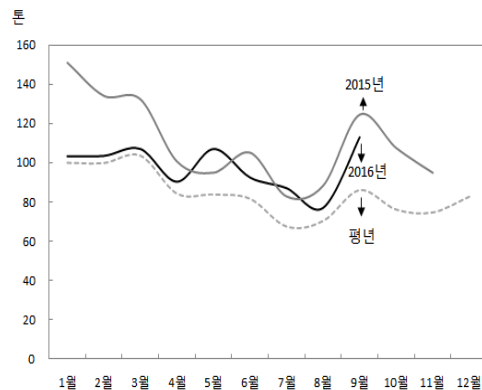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 전망
 - 금년 가을무 생산량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4%, 19% 적은 44만 6천 톤 전망
 - * 가을무 재배면적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5%, 18% 감소한 5,509ha
 - * 가을무 단수는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0%, 2% 감소한 8,094kg/10a
 - * 8월 가뭄으로 파종시기가 지연되었으며, 9~10월 일조시간이 적어 구비대가 원활하지 못하여 단수는 감소
 - 4/4분기 무 출하량은 가을무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작년보다 15% 내외 적을 것으로 전망됨.
 - 4/4분기 무 도매가격은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월동무 재배면적
 - 2016년 월동무 재배면적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 8% 감소한 4,065ha로 추정됨.
 - * 10월 5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피해면적이 증가하여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감소함.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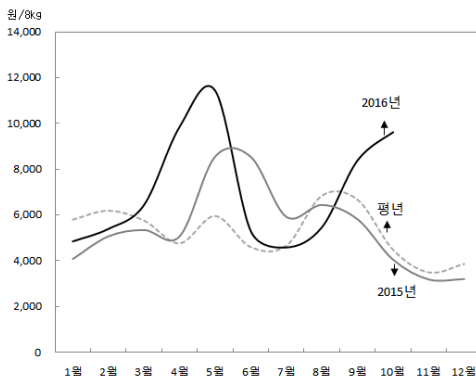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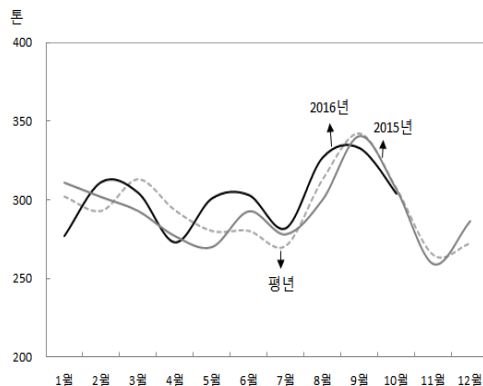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보다 32% 상승하고, 평년보다 6% 하락함.
 - * 3/4분기 가격: 2015년(25,042원/20kg), 2014년(44,475원), 평년(35,127원)
 - * 고랭지당근 가격 상승 이유: 가을당근 재배면적 감소와, 겨울당근 태풍피해로 인한 저장수요 증가로 시장출하량이 감소함.
 - 3/4분기 당근 20kg당 월별 평균 가격은 7월 23,785원, 8월 39,075원, 9월 36,594원으로 나타남.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파종기 고온과 가뭄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생육초기 태풍으로 피해를 받아 출하량이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4/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겨울당근 재배면적
 - 2016년 겨울당근 재배면적은 파종기 가격 약세로 작년보다 13% 감소할 전망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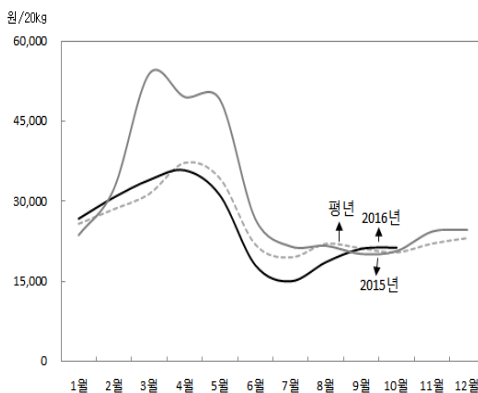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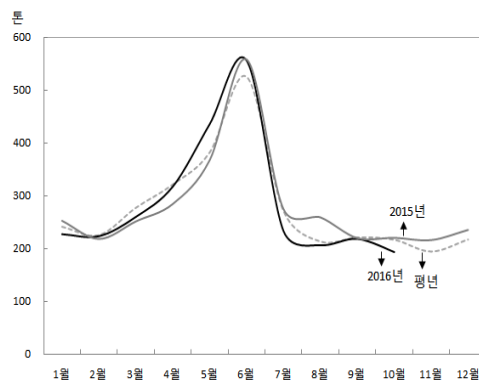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봄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8% 높았음.
 - * 가을양배추 가격 상승 이유: 7,8월에는 작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9월에 배추, 무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체재로써 소비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함.
 - 3/4분기 월별 가격은 7월 4,558원, 8월 5,397원, 9월 8,124원으로 나타남.
 - * (2016년 3/4분기) 6,059원/8kg, (2015년 3/4분기) 3,547원, (평년 3/4분기) 6,050원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겨울양배추 생산량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39%, 34% 내외 감소할 전망
 - * 겨울양배추 단수는 생육 초기 태풍피해로 작년보다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10월 늦은 태풍으로 양배추 생육상 재파종도 불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4/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겨울양배추 재배면적
 -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작년 대비 3% 증가 전망

2.5. 감자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감자(수미)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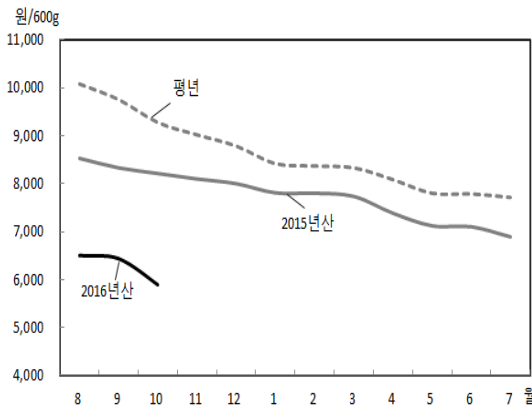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감자(수미)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18,257원/20kg으로 작년과 평년 대비 각각 14%, 13% 낮았음.
 - * (금년) 18,257원/20kg, (작년) 21,128원/20kg, (평년) 20,914원/20kg
 - * (7월) 15,062원/20kg, (8월) 18,645원/20kg, (9월) 21,066원/20kg
 - 봄감자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나, 고랭지감자의 생산량 감소 및 상품성 저하로 7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가을감자 생산량 작년과 평년 대비 각각 18%, 39% 감소한 2만 7천 톤 전망
 - * 내륙지역: 재배면적은 작년 대비 2.4% 증가하지만 단수가 작년 대비 8.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산량은 작년보다 6.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 제주지역: 재배면적과 단수가 작년 대비 각각 3.2%, 36.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량은 작년보다 38.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저장 고랭지감자와 가을감자의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어 전체 출하량은 작년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
 - 4/4분기 수미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가을 햇감자가 출하되는 11월 중하순 이후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다만, 현재 관망세인 저장 봄감자의 출하량이 증가할 경우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겨울감자 재배의향면적
 - 2016년 겨울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종자가 부족하고, 타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아 작년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대체작목: 마늘, 양파, 양배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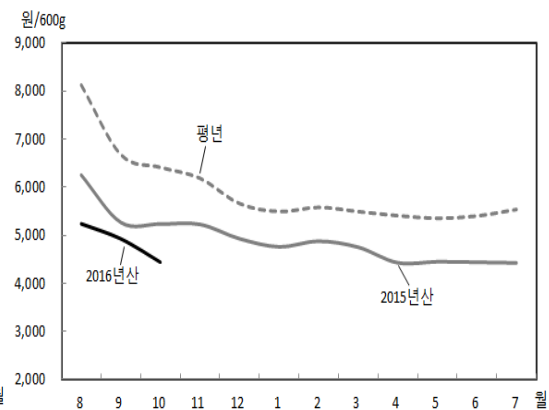
3. 양념채소¹²⁾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1년 8월~2016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16년 3/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3/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21%, 32% 낮은 6,610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6% 낮은 4,860원이었음.

* 도매가격: (금년) 6,610원/600g, (전년) 8,350원, (평년) 9,680원

* 산지가 가격: (금년) 4,860원/600g, (전년) 5,770원, (평년) 7,260원

-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3/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1,142톤) 대비 11% 적은 1,020톤 임.
- 2016년산 건고추 생육은 고추 정식 이후 기상 여건 호조로 초기에는 좋았으나, 8월부터 지속된 폭염으로, 작황이 좋았던 전년보다 수확량 감소

12)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i@krei.re.kr), 송성환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 이형용(lhy2813@krei.re.kr), 노수정(nosu303y@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김서영(ksy1208@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기상여건 악화로 초기 수확량이 감소하였음에도 이월 재고량이 많아 가격은 하락세를 보임.
- 2016년산 건고추 생산 동향
 - 2016년산 재배면적은 2015년산보다 7% 감소한 3만 2,179ha임(8. 26, 통계청).

2016년산 고추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6.6	-25.3	-4.6	-8.8	13.5	-13.4	-11.5	-5.6	-6.8

자료: 통계청.

- 2016년산 건고추 10a당 수확량은 전년보다 3~9% 적은 257~274kg 전망
 - * 2016년산 고추 생육상황 조사결과(10. 20), 7월 중순부터 지속된 고온·가뭄으로 석회결핍, 열과 등 생리 장애 발생이 증가하였고, 착과 및 착화량도 적어 전년보다 생육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 따라서 금년 고추 10a당 수확량은 평년보다 7% 많으나, 전년산보다는 9% 적은 258kg으로 전망됨.
 - * 농업관측본부 단수예측모형 및 기상패턴 분석 결과, 10a당 수확량은 257~274kg으로 추정됨.
- 2016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2015년산보다 10~15% 감소한 8만 3천~8만 8천 톤으로 전망됨.

2016년산 건고추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6		32,179	257~274	82.7~88.2
2015		34,514	283	97.7
평년		41,351	242	99.9
증감률	전년	-6.8	-9.2~-3.2	-15.4~-9.7
	평년	-22.2	6.3~13.4	-17.2~-11.8

주: 2016년산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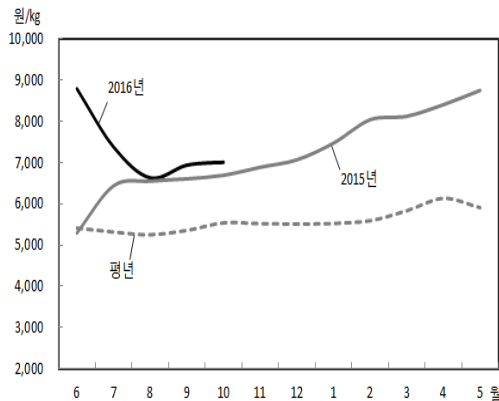
- 건고추 화건 상품 600g당 10월 평균 도매가격은 9월 대비 9% 하락한 5,890원으로 전년과 평년보다도 낮았음.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월보다 10%, 전년보다는 15% 낮은 4,440원이었음.

* 수확이 마무리되면서 중·하품 출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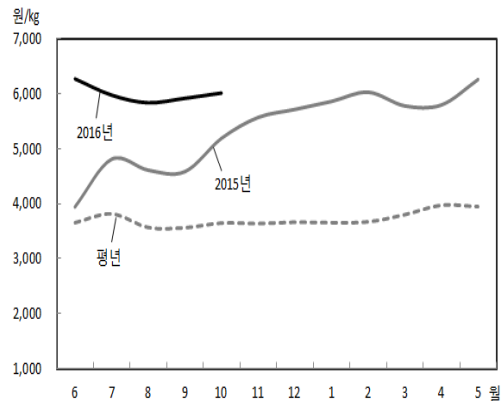
- 2016년산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이월 재고량이 많아 건고추 4/4분기 가격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3.2. 마늘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1년 6월~2016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6년 3/4분기 동향

- 간마늘과 난지형 마늘 3/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2016년산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수매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보다 각각 7%, 27% 높았음.
- 3/4분기 마늘 가격은 2016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음.

* 간마늘 도매가격: (금년) 6,980원/kg, (전년) 6,531원/kg, (평년) 5,307원/kg

* 난지형 도매가격: (금년) 5,911원/kg, (전년) 4,668원/kg, (평년) 3,651원/kg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6년산 마늘 생산량과 입고량은 난지형 대서중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각각 4%, 9% 증가하였으나, 평년보다 각각 16%, 13% 적었음.
 - 2016년산 마늘 입고량이 증가하였으나, 입고가격이 상승하여 11월 깐마늘 가격은 전년보다 5% 높을 전망
 - 2016년산 마늘 입고가격 상승으로 11~12월 마늘 가격은 전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되나, TRQ 도입 및 방출로 10월 가격과 비슷할 전망이다.
 - 10월 말 기준, 감모량을 감안한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약 7만 3천 톤으로 전년보다 11% 많으나 평년보다는 12% 적은 수준임.
 - * 10월까지의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출고량은 약 1만 6천 톤으로 남도종을 중심으로 초기 출고량이 적어 전년보다 4% 감소
 - * 2016년 마늘 TRQ는 3만 6천 톤(국영무역 1만 톤, 수입관공매 1만 3천 톤, 실수요자배정 1만 3천 톤)이 증량되었음.

2016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감모량	재고량
2016	92,973	16,426	3,146	73,400
2015	85,576	17,067	2,406	66,103
평년	107,000	20,000	3,277	83,723
전년 대비	8.6	-3.8	30.8	11.0
평년 대비	-13.1	-17.9	-4.0	-12.3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6년산 4.1%, 2015년산 3.5%, 평년 3.8%)을 적용하고, 정부와 농협의 비축·수매 통(피)마늘 물량이 포함됨.

2. 평년 입고량과 재고량은 냉장협회의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0일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2017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 2017년산 마늘 재배면적 2016년산 마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7~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10. 20), 2017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2016년산 마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7% 증가 전망
 - * 품종별로 한지형이 전년 대비 2% 감소하나, 난지형은 대서종을 중심으로 10% 증가(난지형 중 남도종은 5%, 대서종은 15% 증가) 전망

- * 재배면적반응합수 추정 결과, 2017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1% 증가 전망
- 조사치와 모형 추정치를 감안한 2017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2,270~23,000ha로 전년보다 7~11% 증가하나, 평년보다 7~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2017년산 마늘의 경우 잦은 강우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파종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2017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향후 변동될 가능성 있음.
-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10. 20), 마늘 주요 파종 시기인 9월 중순~10월 중순 파종 비중은 금년 59.0%로 평년(74.4%)보다 적었고, 특히 영남은 9월 하순~10월 중순 파종 비중이 26.1%(평년 68.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2017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	3.1	-11.8	0.0	4.2	-	-1.8
난지	18.2	15.1	8.8	11.4	7.7	9.6
전체	3.2	0.3	8.7	10.1	7.7	7.3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2017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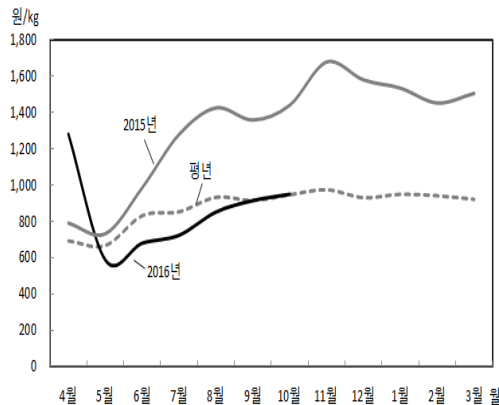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재배면적
2017	22,269~22,984
2015	20,759
평년	24,831
전년 대비	7.3~10.7
평년 대비	-10.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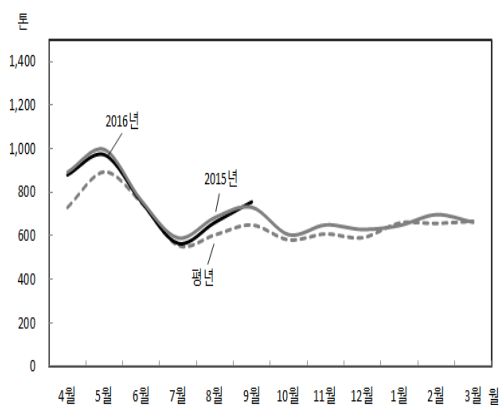
주: 2017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1년 4월~2016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kg당 829원으로 생산량 증가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39%, 8% 낮았음.
 - 월별가격은 8월 850원에서 9월 914원, 10월 949원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8월 가져장 양파 출하가 마무리되고 저장양파의 출하조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 * 도매가격: (금년) 829원/kg, (전년) 1,354원, (평년) 900원
- 2016년산 양파 생산 동향
 - 2016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19% 증가였으나, 평년보다는 4% 감소한 129만 8,749톤임(7. 22, 통계청).
 - * 2016년산 양파의 10a당 수확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8%, 2% 증가한 6,528kg임.
- 2016년산 양파 저장동향
 - 2016년산 중만생종 양파 입고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4% 많은 63만 2천 톤으로 추정됨.

- 2016년산 양파의 저장업체 평균 입고가격은 kg당 600원으로 전년(800원)보다 하락하였으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10월 말 기준, 감모를 감안한 2016년산 양파 재고량은 입고량이 많은데다, 초기 출고량도 적어 전년보다 20% 많으나, 평년보다 3% 적은 43만 8천 톤으로 추정됨.

2016년산 양파 추정 입고량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15		631,944	139,677	437,773
2014		556,426	155,583	364,767
평년		655,363	161,951	450,979
증감률	전년 대비	13.6	22.8	20.0
	평년 대비	-3.6	-0.2	-2.9

주: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6년산 11.1%, 2015년산 9/0%, 평년 8.6%)을 적용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재고량 증가로 전년보다 34% 낮았으나, 전월보다는 4% 높은 950원이었음.
 - 11월 평균 도매가격은 2016년산 저장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으며, 10월과는 비슷한 950원/kg 내외로 전망됨.
- 2017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 2017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16년산 양파 가격하락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작목은 마늘인 것으로 조사됨.
 -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10. 20), 2017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8% 감소 전망
 - * 품종별로 조생종이 전년 대비 20%, 중만생종은 5% 감소 전망
 - * 재배면적반응함수 추정 결과, 2017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4% 감소 전망
 - 조사치와 모형 추정치를 감안한 2017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18,410~19,089ha로 전년보다 4~8%, 평년보다 5~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조생종	-	-	-11.8	-	-	-31.1	-19.6
중만생종	5.8	-4.2	-4.7	-7.8	-7.2	-2.7	-5.3
전체	5.8	-4.2	-6.0	-7.8	-7.2	-23.5	-7.5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2017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단위: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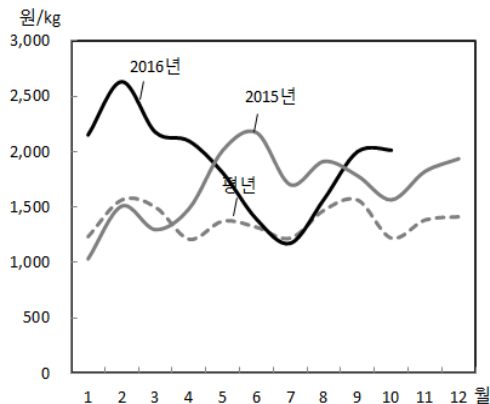
연산	재배면적
2017	18,410~19,089
2016	19,896
평년	20,157
전년 대비	-7.5~-4.1
평년 대비	-8.7~-5.3

주: 2017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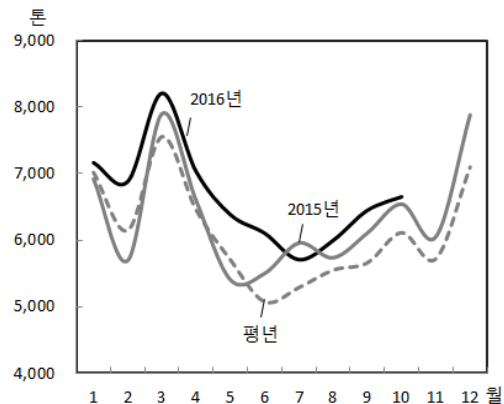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1년 1월~2015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6년 3/4분기 동향
 - 대파 3/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581원(중품 1,34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낮으나, 평년 대비 12% 높았음.
 - 경기지역 재배면적 증가로 출하량이 늘어나 7~8월 가격은 낮았으나, 8월 고온 및 가뭄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하여 출하가 지연되면서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하였음.
 - * (금년) 1,581원/kg, (전년) 1,798원, (평년) 1,417원
 - * (7월) 1,173원/kg, (8월) 1,569원, (9월) 2,000원, (10월) 2,012원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상품 도매가격은 2,012원/kg으로 전년 대비 29% 높으나, 전월과 비슷하였음.
 - 가을, 고랭지대파 출하는 작황이 부진하여 출하 대기면적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11월 중순에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겨울대파는 작황이 부진하여 출하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조사되어 11월 대파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겨울대파 작황은 최근 산지 기온 하락과 적절한 강우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년보다는 부진함.
 - 전남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3%, 7% 감소한 3,178ha로 발표됨(통계청, 10.27).
 - 11월~내년 1월 대파 정식의향면적(내년 4~6월 출하)은 최근 대파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대파 정식의향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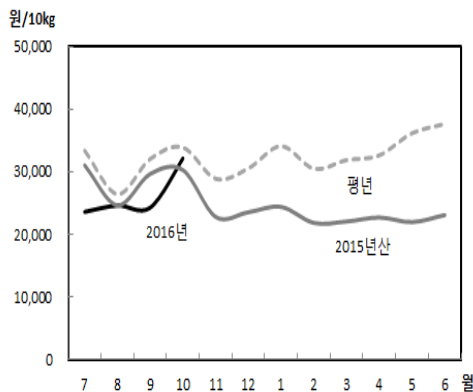
구분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전체
11월~내년 1월	1.1	1.9	2.2	2.8	2.1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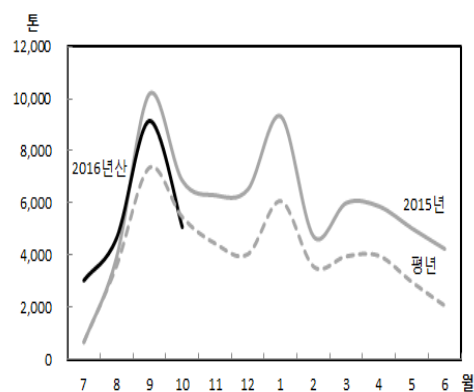
4. 과일¹³⁾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1~15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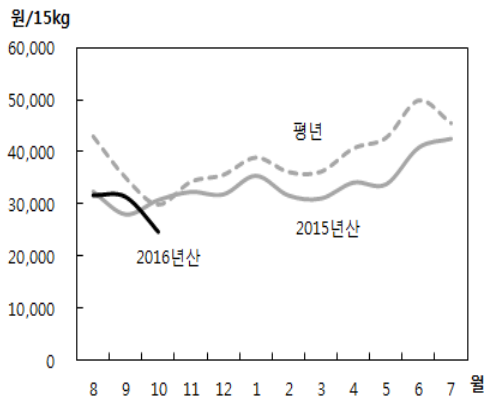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사과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보다 3%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5천원이었음. 이는 반입량이 전년보다 적었으나, 폭염으로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임.
 - 특히,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홍로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에 2만 6천 원으로 전년 성수기보다 10% 낮았음.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양광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4%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2천원이었음.

13)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박미성 부연구위원(mspark@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박한울(phu87@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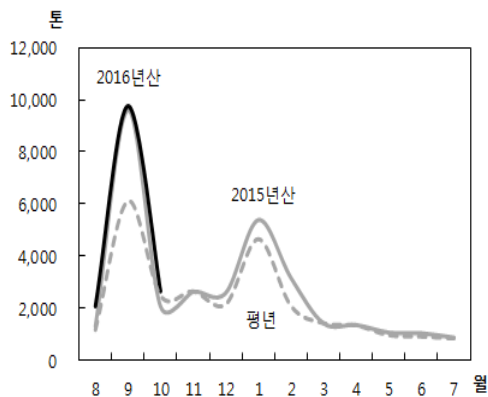
- 11월 사과 출하량은 후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4% 적겠으며, 12월 이후에도 저장량 감소로 6% 적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11월 이후 사과 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생산량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착과수 감소와 폭염으로 전년보다 5% 적은 55만 1천 톤 내외로 전망됨. 만생종 후지는 전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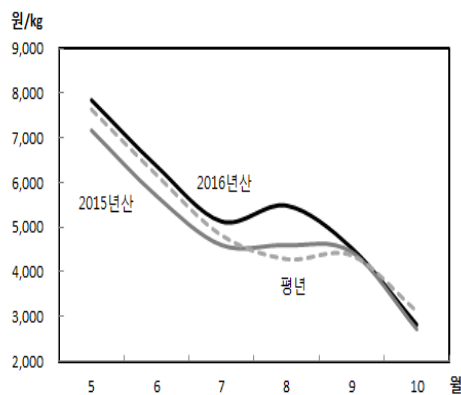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1~15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3/4분기 동향
 - 8월 원황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과 비슷한 상품 15kg 상자에 3만 2천원이었음.
 - 9월 신고 도매가격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12% 높았음. 추석 성수기 초반 배 공급이 적어 상승 가격은 크게 높았으나, 이후 출하가 원활해지면서 가격이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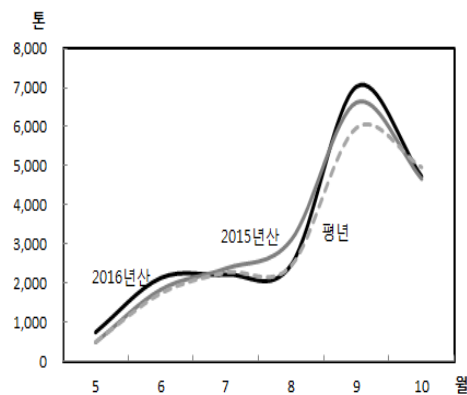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신고 도매가격은 과실 비대 지연으로 추석에 출하되지 못한 배가 출하되면서 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20% 하락한 2만 5천원이었음.
 - 올해 배 저장량(11월~익년 7월)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3% 적을 것으로 전망됨. 11월에는 저장성이 낮은 배 위주로 출하되면서 전년보다 출하량이 7% 증가하겠지만, 12월 이후 출하량은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25만 6천 톤으로 전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저온피해가 심했던 전년보다 착과량이 많고, 흑성병 피해도 적어 단수가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감귤 출하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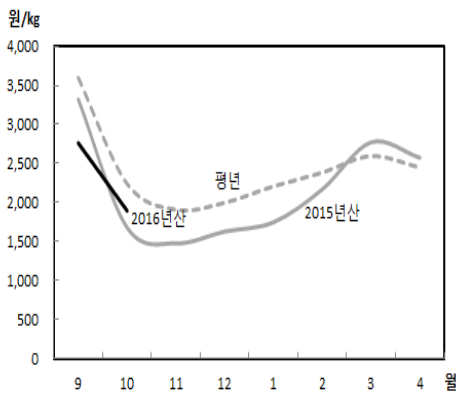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15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2016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하우스온주 평균 도매가격(감귤출하연합회)은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품질이 좋아 kg당 4,850원으로 전년보다 7%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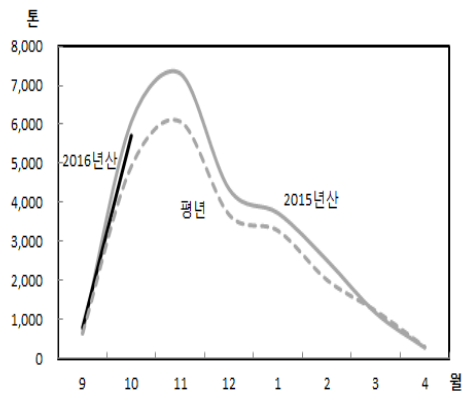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노지온주 도매가격은 품질이 매우 양호하여 전년(1,238원)보다 19% 높은 kg당 1,470원이었음.
 - 11월에는 조생온주 착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출하량이 전년보다 3% 많겠으며, 12월 이후에는 2% 감소할 전망이다.
- 2016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제주시 극조생온주 착과량 증가로 전년보다 1% 많은 52만 7천 톤 수준으로 전망됨. 이는 10월 태풍 및 잦은 비로 인해 부패과와 낙과가 많아 9월 말 전망치보다 감소한 수치임.

4.4. 단감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단감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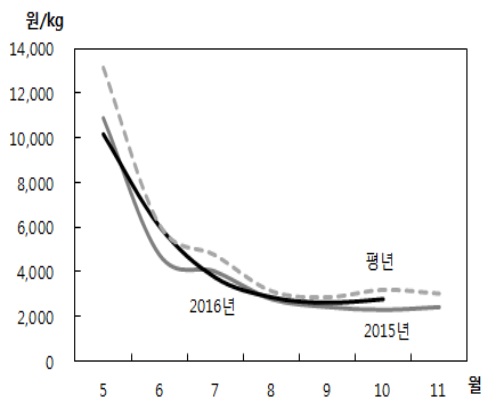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1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6년 3/4분기 동향
 - 9월 단감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15%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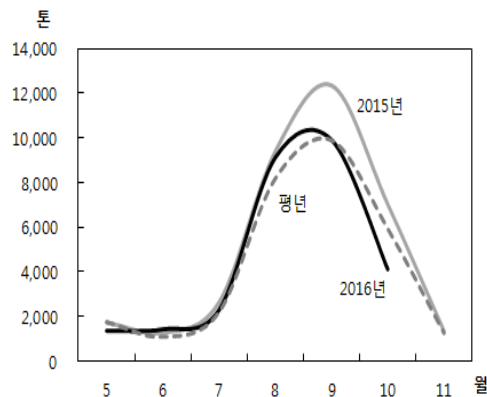
- 다만, 추석 성수기(추석 전 1주) 서촌조생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4만원으로 전년 성수기보다 33% 높았음. 이는 올해 추석(9.15.)이 전년보다 빨라 출하가능 물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부유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13%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9천원이었음.
 - 11월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5%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이후에도 저장량 감소로 출하량은 적을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단감 생산량은 최근 가격 불안정 및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보다 11% 적은 15만 6천 톤으로 전망됨.

4.4.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1~1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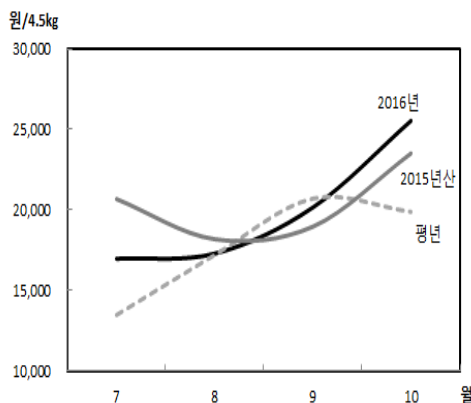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 6~11월 캠벨얼리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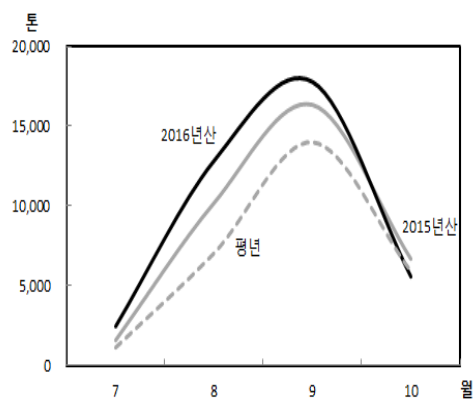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동향
 - 8~9월 캠벨얼리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감소로 상품 5kg 상자에 전년보다 5% 높은 1만 4천원이었음. 반입량이 전년보다 적었으나, 8월 폭염으로 품질이 좋지 않아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았음.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캠벨얼리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22% 높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4천원이었음.
 - 11월 이후 포도 출하량은 노지포도 생산량 감소로 저장량이 적어 전년보다 29% 감소할 전망이다.
- 2016년 생산량 전망
 - 올해 포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16% 감소한 21만 8천 톤으로 추정됨. FTA폐업지원으로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7% 감소하였고, 7~8월 폭염의 영향으로 단수도 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임.

4.6.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1~15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 7월 백도, 8월 천중도백도, 9월 엘버트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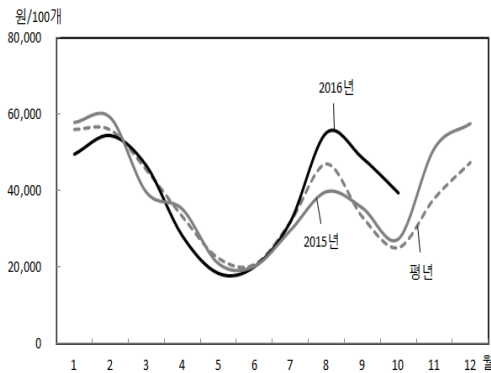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6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복숭아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 4.5kg 상자에 2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4% 높았음. 이는 반입량이 전년보다 많았으나 당도·색택 등 품질이 매우 좋았기 때문임.
- 2016년 생산량 추정
 -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전년보다 9% 증가한 26만 톤 내외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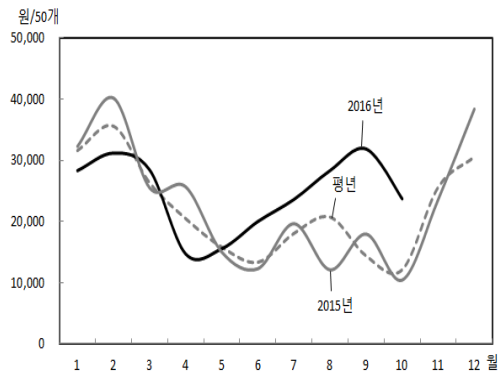
5. 과채¹⁴⁾

5.1. 오 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6년 3/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7월 3만 1,900원, 8월 5만 5,200원, 9월에는 4만 8,6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4만 5,2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9% 높았음.
- 백다다기오이 3/4분기 반입량은 폭염과 고온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작년 동기보다 9% 적었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7월에는 2만 3,600원, 8월 2만 8,300원, 9월은 3만 1,8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69% 높은 2만 7,900원이었음.
- 취청오이 3/4분기 반입량은 주산지인 강원에서 고온으로 생육 장애가 발생하여 작년 동기보다 11%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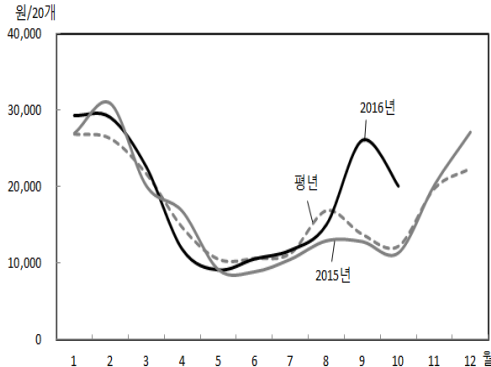
14)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박미성 부연구위원(mspark@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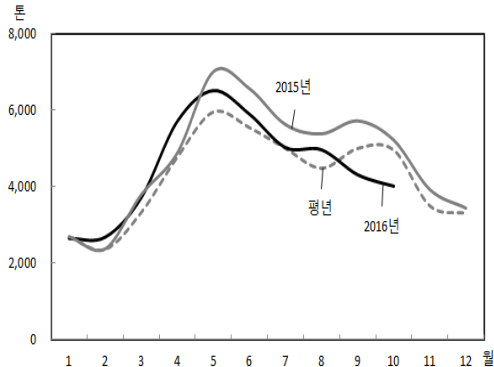
- 10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10월 상순 잦은 강우로 출하량이 줄어 작년 동기보다 44% 높은 상품 100개에 3만 9,400원이었음.
- 11~12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주산지인 충청과 영남의 재배면적 증가로 기상이변이 없는 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0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충청지역 재배면적 감소 및 잦은 강우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작년 동기보다 127% 높은 상품 50개에 2만 3,700원이었음.
- 11~12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충청과 호남에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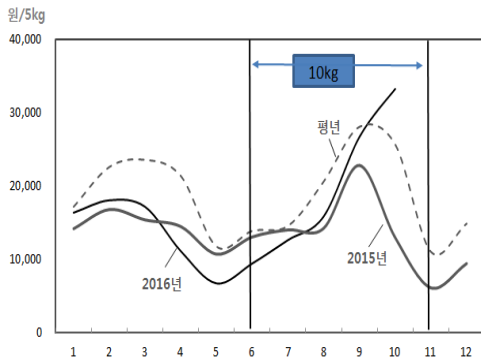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7월 1만 1,700원, 8월 1만 5천원, 9월에는 2만 6,1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46% 높은 1만 7,600원이었음.
- 3/4분기 반입량은 주산지인 강원에서 계속된 고온으로 수확량이 감소하여 작년 동기보다 15%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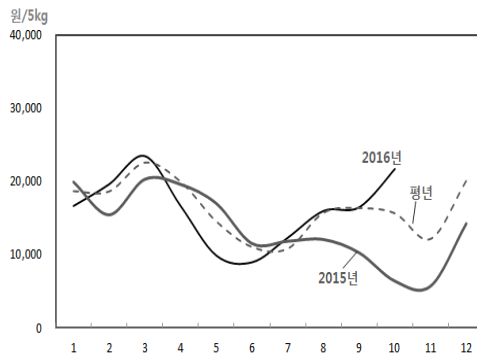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여름철 고온으로 정식을 늦춘 충청에서 출하가 지연되고, 잦은 비로 작황도 좋지 않아 작년 동기보다 77% 높은 상품 20개에 2만 100원이었음.
 - 애호박 11~12월 출하량은 정식기 고온으로 충청의 출하가 원활하지 않겠으나, 출하비중이 확대되는 영남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기상이변이 없는 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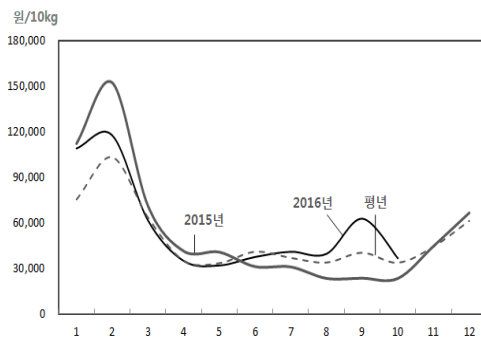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6년 3/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1만 2,700원, 8월 1만 5,900원, 9월에는 2만 6,7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1만 8,4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 높았음.
 - 일반토마토 3/4분기 반입량은 여름철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하여 작년 동기보다 5%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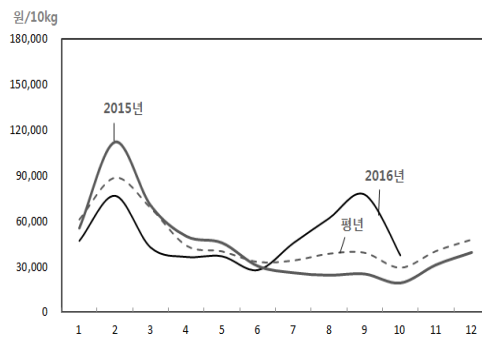
-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에 7월 1만 2,300원, 8월 1만 6천원, 9월에는 1만 6,5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1만 4,9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 높았음.
- 방울토마토 3/4분기 전체 반입량은 주산지에서 지속된 고온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작년 동기보다 18% 적었음.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 동기보다 156%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3,100원이었음.
 - 11~12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기상 악화로 작황이 부진하여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 10월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줄어 작년 동기보다 240% 높은 상품 5kg 상자에 2만 1,700원이었음.
 - 11~12월 전체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기상 악화로 생육이 부진하여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5.4.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녹광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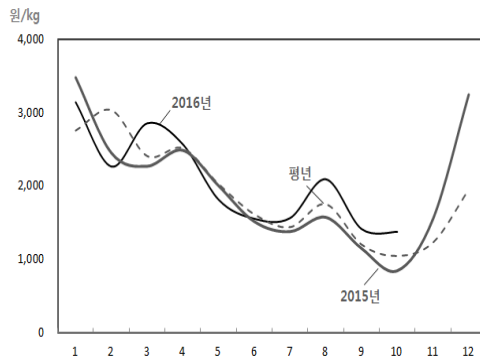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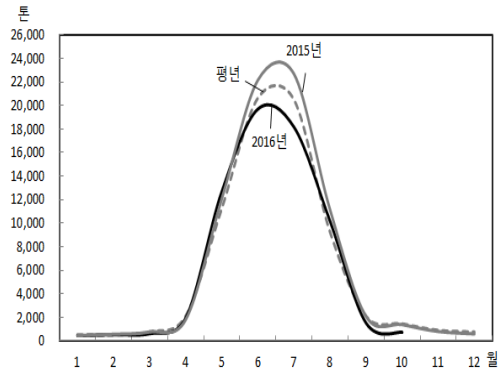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동향
 - 청양계꽃고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4만 900원, 8월 3만 9,500원, 9월에는 6만 2,7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4만 7,3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2% 높았음.
 - 청양계꽃고추 3/4분기 반입량은 강원 면적 감소와 여름철 지속된 고온으로 작년 동기보다 15% 적었음.
 - 녹광꽃고추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4만 5,700원, 8월 6만 2천 원, 9월에는 7만 7,7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6만 1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41% 높았음.
 - 녹광꽃고추 3/4분기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에서 정식면적이 감소하여 작년 동기보다 29% 감소하였음.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상품 10kg 상자에 작년 동기보다 57% 높은 3만 6,600원, 녹광꽃고추도 94% 높은 3만 7,700원이었음.
 - 11월 청양계꽃고추 출하량은 영·호남에서 생육기 기상 악화로 작년보다 감소하겠으나, 12월은 주산지의 재배면적 확대로 기상이변이 없는 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1~12월 녹광꽃고추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영·호남의 면적 축소로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5.5.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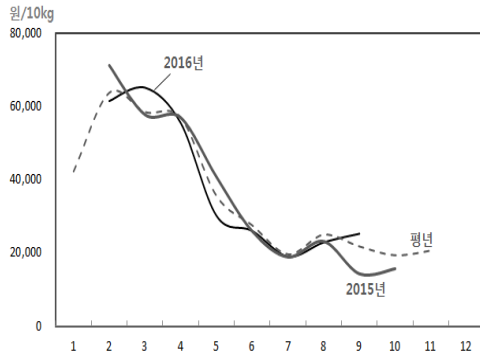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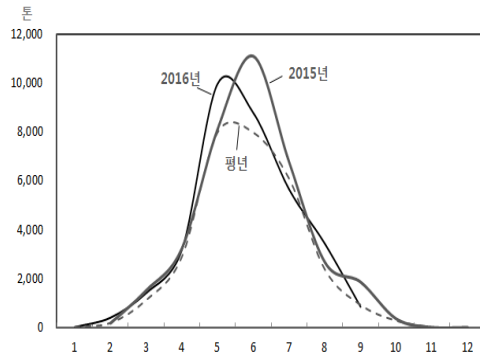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동향
 - 수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7월 1,560원, 8월 2,090원, 9월 1,43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24% 높은 1,700원이었음.
 - 수박 3/4분기 반입량은 주산지인 충청의 면적 감소와 여름철 폭염으로 작년 동기보다 17% 감소하였음.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수박 도매가격은 주산지의 면적 축소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작년 동기보다 63% 높은 상품 1kg에 1,370원이었음.
 - 11월 수박 출하량은 출하비중이 큰 충청의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12월은 주 출하지인 영남에서 고령화 문제로 면적이 축소되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5.6.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참외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11~2015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6년 3/4분기 동향
 - 참외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1만 9천원, 8월 2만 2,900원, 9월에는 2만 5,2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2만 2,4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9% 높았음.
 - 3/4분기 반입량은 기상 악화로 생육이 부진한데다 출하를 조기 종료한 농가가 늘어 작년 동기보다 12%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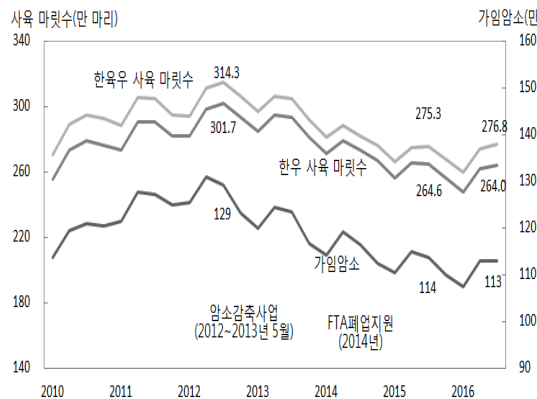
5.7. 딸기

- 2016년 4/4분기 전망
 - 딸기 11~12월 출하면적은 금년산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수량성 높은 고설식 재배비중도 확대되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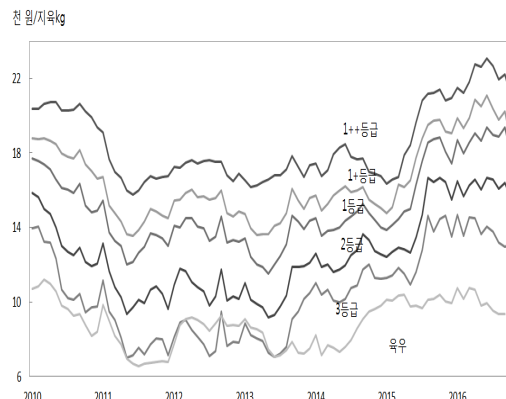
6.1. 한육우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3/4분기 동향

- 육우 사육 증가로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6월(274만 마리)보다 1.0% 증가한 277만 마리였음(전년 동월 275만 마리보다 0.5% 증가).

*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277만 마리, 한우 264만 마리, 육우 12만 8천 마리

*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 113만 마리(전년 동월 114만 마리)

- 추석 수요 증가로 3/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2/4분기 19,024원/지육 kg보다 0.3% 상승한 19,080원임(전년 동기 18,297원보다 4.3% 상승).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 소비 위축으로 10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3/4분기보다 5.7% 하락한 17,984원이었음(전년 동월 18,836원보다 4.5% 하락).

15)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지인배 연구위원(jiinbae@krei.re.kr),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정세미(wjdtpal55@krei.re.kr), 지선우(bsn02@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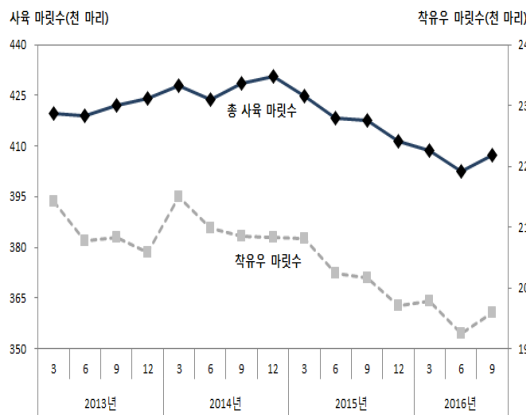
-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9월보다 3.5% 감소한 267만 마리로 전망됨(전년 동월 268만 마리보다 0.1% 감소).
- 수요 위축이 예상되어 11~12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3/4분기 대비 약세인 16,000~18,000원으로 전망됨(전년 동기 17,756원보다 4%내외 하락).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9월(A)	12월(B)	B/A
사육 마릿수	277만 마리	267만 마리	-3.5%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7~9월 19,080원	11~12월 16,000~18,000원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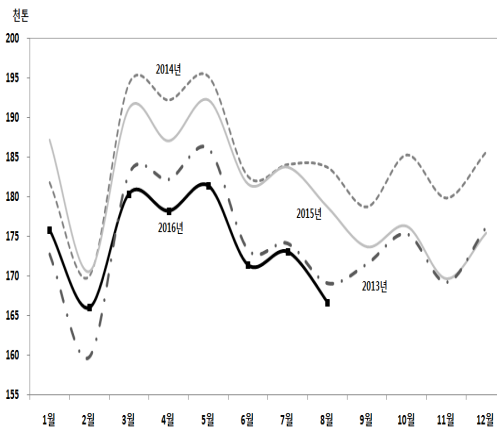
6.2. 젓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자료: 낙농진흥회.

● 2016년 3/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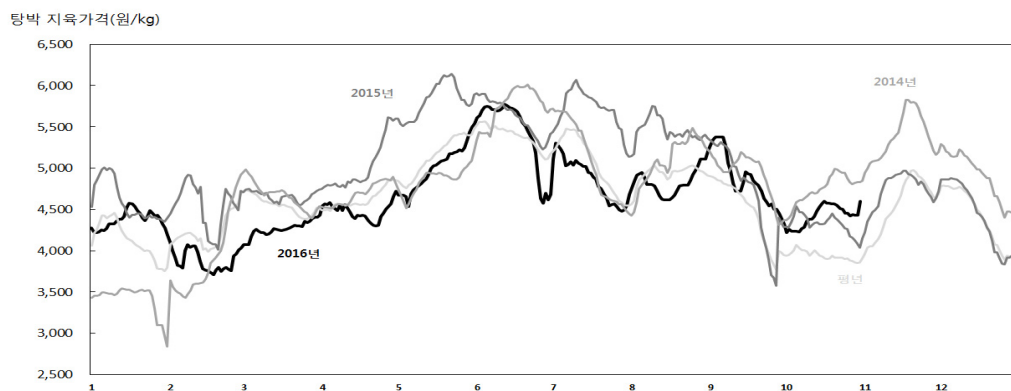
- 9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원유 감산 대책에 따라 전년 동기 보다 2.5% 감소 (전분기 대비 1.2% 증가)한 40만 7천 마리였음. 그러나 저능력우 도태가 활

발하고 낮은 입식 의향을 보였던 6월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착유우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2.8% 감소(전분기 대비 1.8% 증가)한 19만 6천 마리임. 착유우 마릿수 감소로 3/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50만 8천 톤임.
- 2016년(9월 기준) 분유재고량은 전년 동기 보다 39.2% 감소한 1만 2,609 톤임. 분유재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상태임.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착유우 마릿수 감소로 4/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2.3~3.2% 감소한 50만 5천~51만 톤으로 전망됨.

6.3. 돼지

돼지 도매 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6년 3/4분기 동향
 - 2016년 9월 모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4.4% 증가한 98만 4천 마리였음. 모든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3.3% 증가한 1,067만 마리임(통계청).
 - 사육 마릿수 증가로 3/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1% 증가한

381만 마리였음(축산물품질평가원).

- 도축 마릿수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해 3/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5,286원)보다 7.3% 하락한 탕박 기준 지육 kg당 4,898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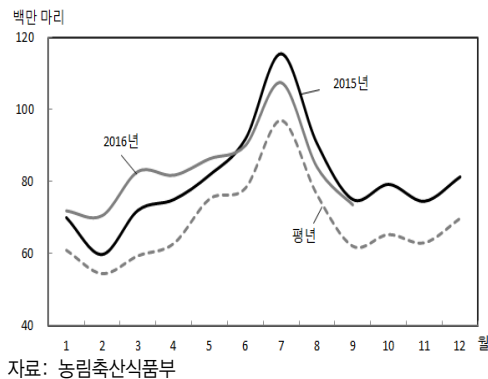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자돈 생산 증가로 4/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1.3% 증가한 448만 마리로 전망됨.
- 도축 마릿수는 증가하나 돼지고기 수요 증가(저탄수화물고지방 식단 방송 이후 돼지고기 수요 증가 추정)로 2016년 4/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 수준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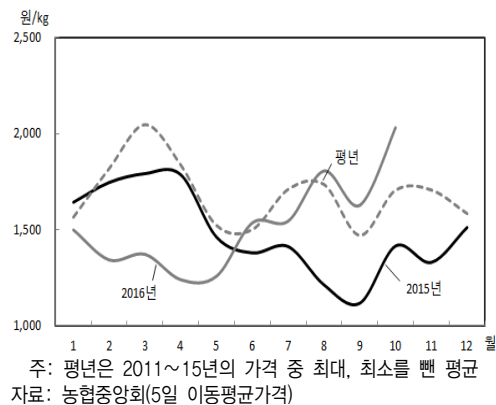
* 10월 4,415원, 11월 4,500~4,800원, 12월 4,300~4,600원으로 전망됨.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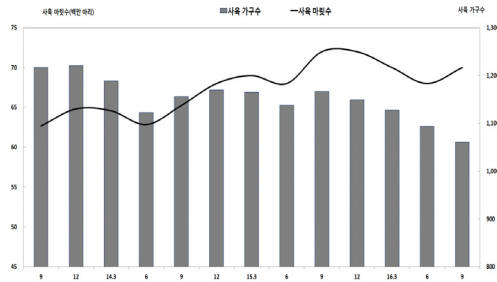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동향

- 2015년 미국 내 HPAI 발생으로 인해 원종계 입식이 지연되고, 입식 마릿수도 감소하여 2016년 상반기 종계 입식은 전년보다 10.8% 감소하였음. 그러나 원종계 사육 마릿수 회복으로 3분기 종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보다 7.5% 증가하였음.

- 계열업체의 자율적 공급 조절과 폭염으로 인한 폐사, 증체율 하락 등으로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음. 3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2억 6,515만 마리였음.
 - 국내산 닭고기 공급량 감소로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2016년 3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33.0% 상승한 1,659원/kg임. 폭염 피해로 인한 폐사와 증체율 하락으로 심각한 대답 부족 현상이 발생한 8월과 9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8.9%, 45.6% 상승하였음.
 - 2016년 4/4분기 전망
 - 폭염으로 인한 종계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9월 병아리 생산 감소로 추석 이후 대답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10월 육계 산지가격은 2,031원/kg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5% 상승하였음.
 - 9월 육용 성계 사육 마릿수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종계 생산성 하락 영향으로 11월 육계 사육 및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낮아 12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여, 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억 3,943만 마리로 전망됨.
 - 11월 닭고기 공급은 증가하지만 저탄수화물고지방 식단 방송 보도로 닭고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11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1,400~1,600원/kg, 닭고기 수요 증가 지속으로 12월 육계 산지가격은 1,500~1,700원/kg으로 전망됨.
- * 10월: 2,031원/kg, 11월: 1,400~1,600원/kg, 12월: 1,500~1,70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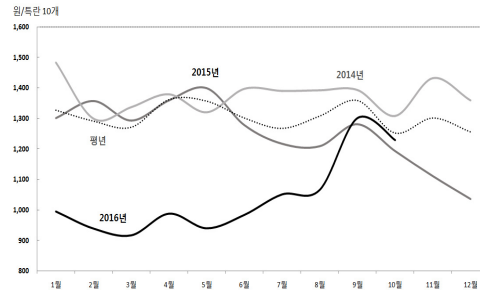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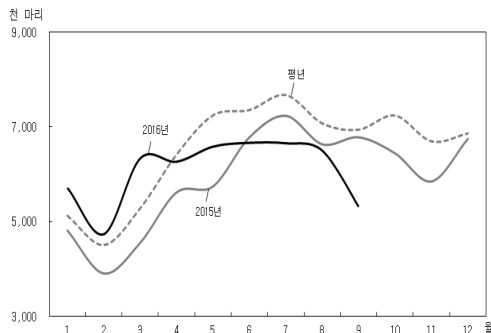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6년 3/4분기 동향
 - 6개월령 미만 산란계 마릿수 감소로 9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3.1% 감소한 69,853만 마리였음.
 -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5~9월)은 1,980만 마리로 전년보다 3.7% 감소하였고, 산란 성계도태는 전년보다 1.0% 증가한 1,352만 마리였음.
 - 7~8월 월별 산지가격은 계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13% 하락한 1,059원/독란10개 이었음.
 - 9월 산지가격은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비슷하였으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에 대한 보도 이후 계란 소비 증가로 전년보다 1.6% 상승한 1,301원/독란10개이었음.
- 2016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4분기 산란 가담 신계군이 감소하나, 성계 도태도 감소하여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전년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4분기 계란 소비는 작년 동기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계란 생산량은 증가하나 소비증가로 4분기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1,150~1,35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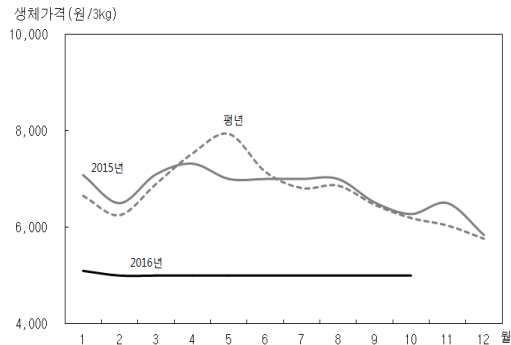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압 마릿수



주: 평년은 2010~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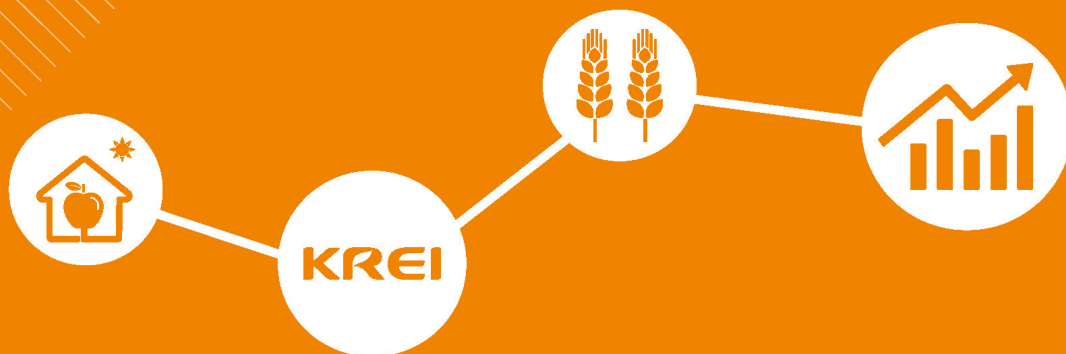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0~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한국오리협회

● 2016년 3/4분기 동향

- 9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6.2% 감소한 877만 마리임. 오리 산지 가격 하락 및 종오리 감축으로 종오리와 육용오리 마릿수는 전년보다 각각 16.2% 감소함. 2016년 9월 기준 종오리 마릿수는 76만 4천 마리이며, 육용오리 마릿수는 800만 6천 마리임.
- 종오리 감축으로 육용오리 입식이 감소하여 3/4분기 도압 마릿수는 전년에 비해 10.6% 감소한 1,846만 마리임.
-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소비량 대비 공급량이 많아 3/4분기 오리 생체가격(3kg)은 전년 동기보다 26.9% 하락(평년 대비 16.6% 하락)한 5,000원임.

● 2016년 4/4분기 전망

- 육용오리 입식 감소로 9~11월 도압 마릿수는 전년보다 3.4% 감소한 1,840만 마리로 전망됨.
- 오리고기의 꾸준한 소비에도 불구하고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많아 10~11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한 4,800~5,300원/3kg으로 전망됨.



특별주제

- ①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동향
- ②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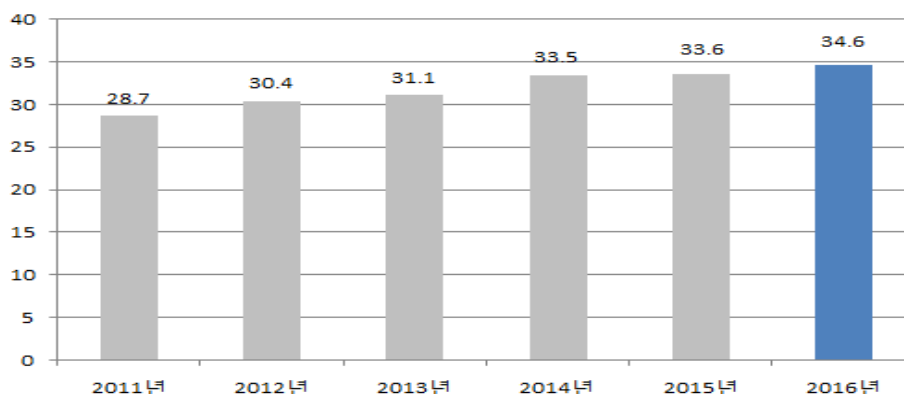
이상현**, 안수정***

1.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 우리나라의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한 34억 5,957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수출대상국내 한국산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전년 동기 대비 달러 및 엔화의 강세로 수출여건이 개선되어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연간 상반기 수출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본고는 「현안분석 -제 19호 2016년 우리나라의 상반기 농식품 수출동향」을 재구성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shlee@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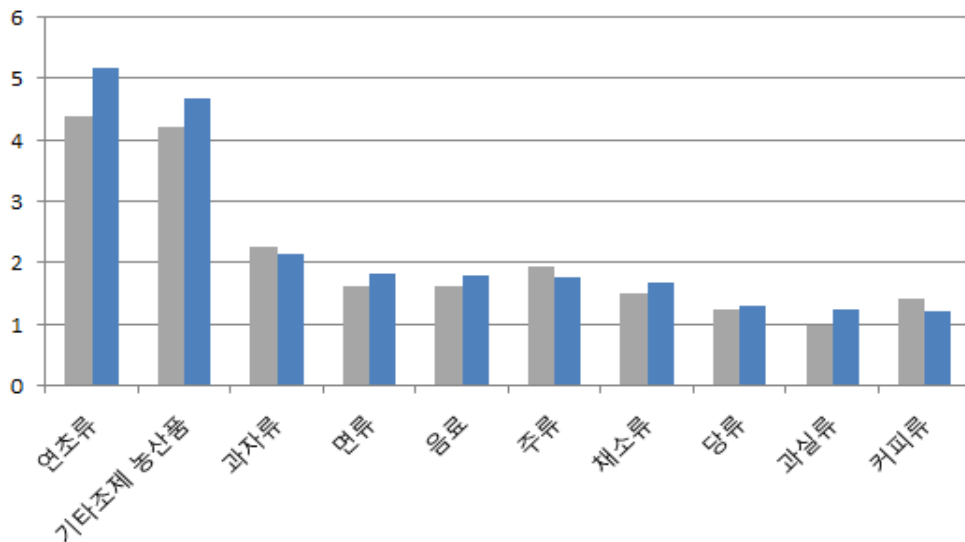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crystalism14@krei.re.kr)

- 2016년 상반기 주요 수출 성장 품목은 연초류, 기타조제 농산품(혼합조제 식료품, 아이스크림, 식초 등), 면류, 음료 등의 가공식품과 채소류와 과실류 등 신선 농산물임. 특히, 과실류와 연초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6%, 18.3% 증가하였고, 면류와 음료, 기타조제 농산품과 채소류도 10% 이상 증가하였음.
- 음료의 경우 미국시장 내 유통매장 확장 및 신규바이어 확보로 인한 알로에음료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캄보디아에서도 한국산 에너지 음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반면, 과자류, 주류, 커피류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4.8%, 9.5%, 14.5% 감소하였음. 주류의 경우, 일본 현지 시장에서 저도주와 칵테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산 주류(막걸리) 소비가 감소하고 있음. 커피류의 경우, 중국 현지 생산 증가와 동남아 상품과의 경쟁심화로 커피조제품의 수출이 감소하였음.

상반기 농식품 수출 상위 품목

단위: 억 달러

■ 2015년 ■ 2016년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2016년 상반기 기준 연초류와 음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위 수출 품목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미국, 중국임. 상위 수출 품목 중 연초류, 과자류, 주류, 채소류, 당류, 과실류는 주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60%으로 매우 높은 편임.
- 신선 농산물 중 채소류 수출에 대한 일본의 점유율은 49.6%로, 주로 파프리카와 김치가 수출되고 있음. 신선 농산물 중 과실류 수출에 대한 중국의 점유율은 42.8%로, 주로 단일과실조제품과 과실혼합물이 수출되고 있음.
- 상반기 농식품 수출 동향에서 사과, 파프리카, 딸기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 증가는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전년 동기 대비 교포들이 주로 소비하는 김치, 고추장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에 현지인들의 소비 비중이 높은 인삼, 가금육, 커피조제품, 조제분유 등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면은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해서는 아쉬운 점임.

상반기 수출 상위품목과 수출대상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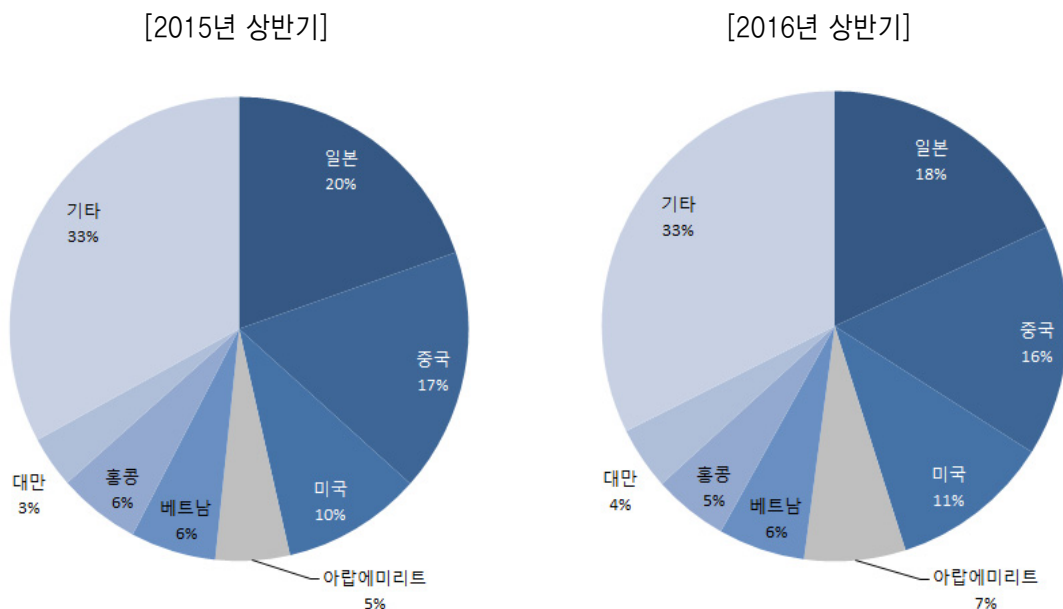
	1위	2위	3위
연초류	아랍에미리트 38.5	일본 13.0	미국 10.8
기타조제 농산물	일본 14.8	중국 12.5	미국 11.0
과자류	중국 28.7	일본 18.3	미국 16.0
면류	미국 20.5	중국 15.3	일본 7.9
음료	미국 22.2	캄보디아 16.9	중국 14.1
주류	일본 60.5	중국 10.2	홍콩 10.1
채소류	일본 49.6	미국 7.7	대만 7.7
당류	중국 33.7	홍콩 16.5	필리핀 14.3
과실류	중국 42.8	대만 10.6	홍콩 7.8
커피류	중국 15.4	인도네시아 13.2	러시아 11.0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2.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 우리나라의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 중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이었음. 전년 동기대비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으로의 수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對일본 및 중국 농식품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2%p, 1%p 하락한 반면, 對아랍에미리트의 수출 비중이 2%p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제 4의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 대만 내 우리나라 배추 및 사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우리나라의 2016년 상반기 對대만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p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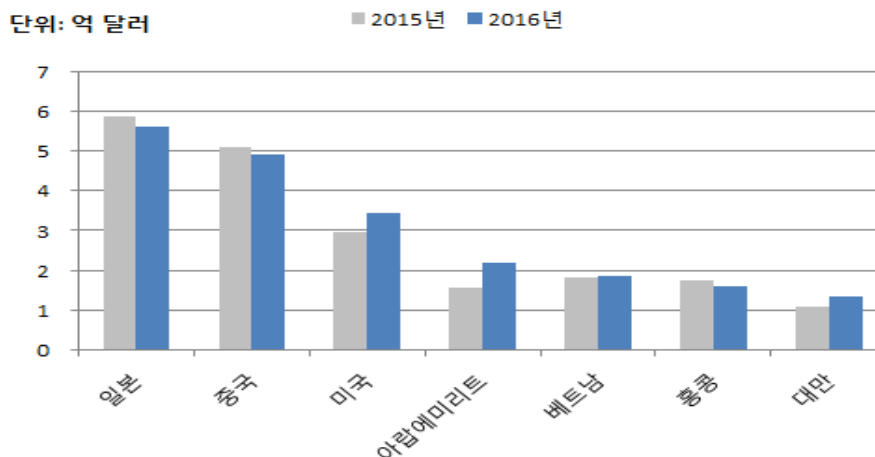
상반기 농식품 수출 대상국 비중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우리나라의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 중 일본과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미국, 아랍에미리트, 홍콩, 대만으로의 수출액은 크게 증가하였음.
- 2016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對일본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한 5억 6,100만 달러임.
-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1% 감소한 4억 9,262만 달러임.
- 對홍콩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7.5% 감소한 1억 6,058만 달러임.
- 對아랍에미리트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9.1% 증가한 2억 1,800만 달러임.
- 對미국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6.9% 증가한 3억 4,421만 달러임.
- 對베트남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한 1억 8,644만 달러임
- 對대만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4.6% 증가한 1억 3,436만 달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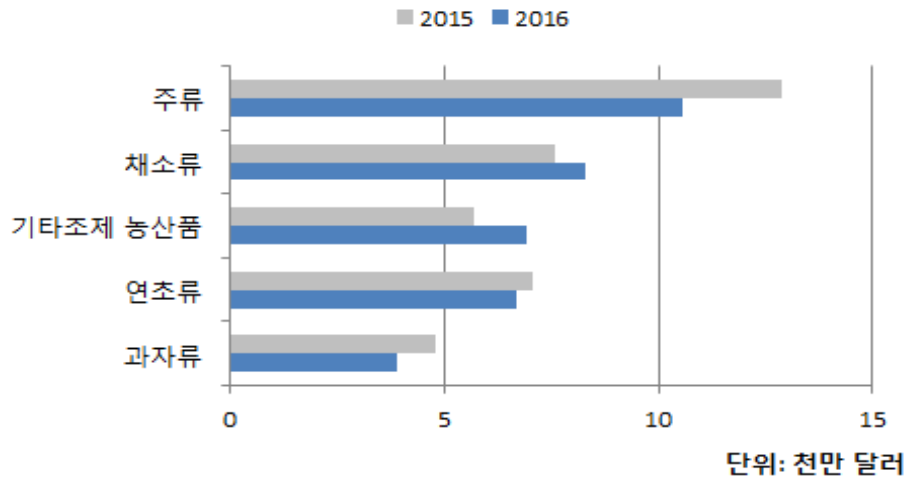
상반기 농식품 주요 수출 대상국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국가별·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본, 중국, 베트남으로의 기존 최대 수출 품목들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로의 최대 수출 품목 수출은 더욱 증가하였음. 對일본 최대 수출 품목인 주류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2% 감소하였고, 연초류와 과자류 등도 각각 5.0%, 18.7%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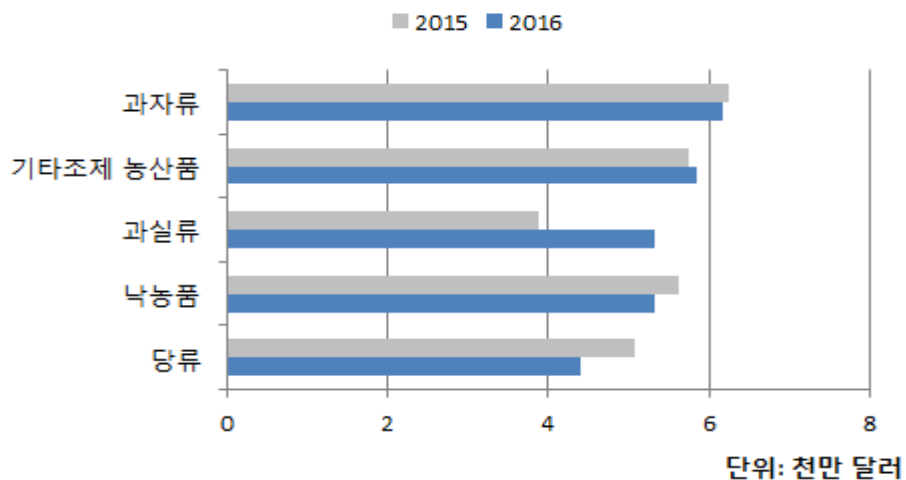
對일본 수출 상위 품목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對중국 최대 수출 품목인 과자류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하였고, 다른 주요 수출 품목인 낙농품과 당류 등도 각각 5.5%, 13.1%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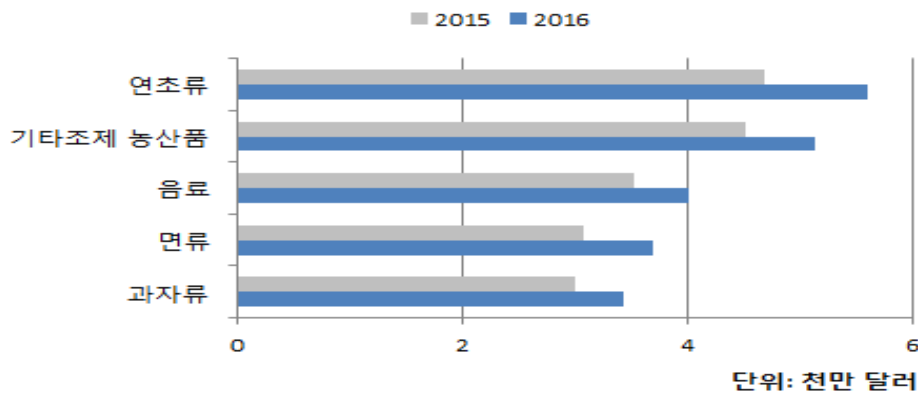
對중국 수출 상위 품목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對미국 주요 수출 품목인 연초류와 면류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약 20% 증가하였고, 이 외에도 기타조제 농산품, 음료, 과자류의 수출이 약 1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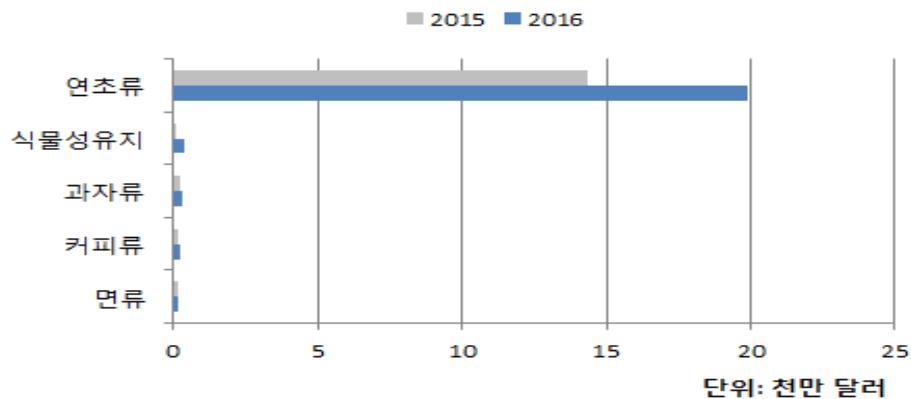
對미국 수출 상위 품목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對아랍에미리트 최대 수출 품목인 연초류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8.4% 증가하였고, 이 외에도 주요 수출 품목인 식물성유지는 3,332.5%, 과자류, 커피류, 면류는 각각 38.8%, 29.0%, 19.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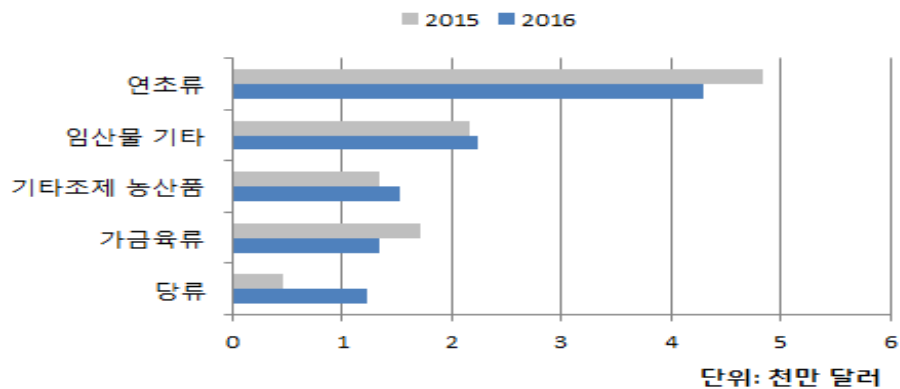
對아랍에미리트 수출 상위 품목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對베트남 최대 수출 품목인 연초류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1.0% 감소하였고, 이외에도 주요 수출 품목인 가금육류의 수출이 21.3% 감소한 반면, 임산물(기타), 기타조제농산품, 당류의 수출은 각각 3.2%, 13.1%, 163.5%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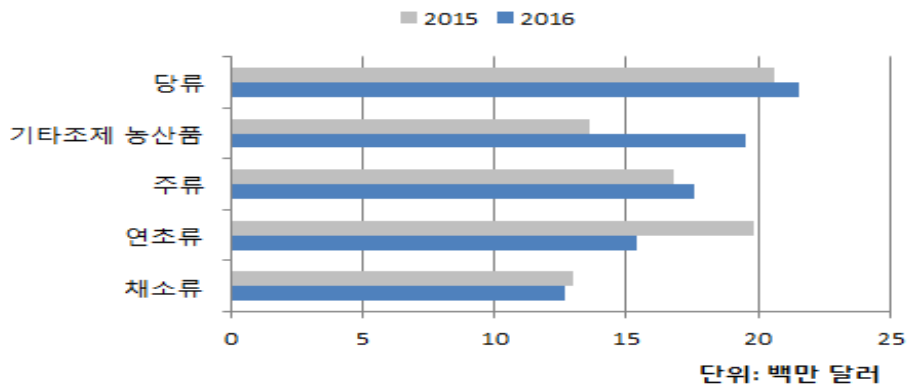
對베트남 수출 상위 품목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對홍콩 농식품 수출은 당류, 기타조제 농산품, 주류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4.7%, 43.4%, 4.5% 증가한 반면, 연초류와 채소류의 수출은 각각 22.4%, 2.8%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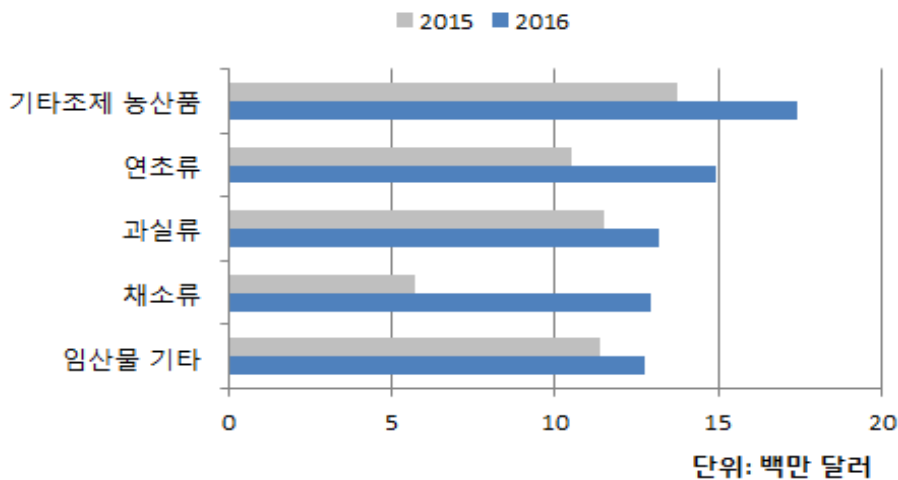
對홍콩 수출 상위 품목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對대만 주요 수출 품목인 기타조제 농산물, 연초류, 과실류, 채소류, 임산물(기타)는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채소류의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함.

對대만 수출 상위 품목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3. 시사점

- 우리나라의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은 환율 등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수출시장개척 및 홍보 정책 지원이 확대되면서 2015년 상반기 대비 3.0% 늘어남.
- 아랍에미리트, 홍콩, 대만으로의 수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은 수출대상국 다양화차원에서 긍정적인 현상임. 하반기에는 전년 상반기 대비 농식품 수출이 감소한 중국과 일본은 물론 베트남 등 최근 수출이 많이 늘고 있는 ASEAN 국가에서의 홍보 및 판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농식품 수출은 상당부분 교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현지 수입업체들은 교포 시장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해서는 현지인들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최근 산업의 발전은 수요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출대상국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시장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 우리나라 농식품의 주요 판매처는 백화점이나 한인마트임. 현지 시장 유통채널의 다양화도 필요함. 현지인 기호에 맞게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법 및 식품 개발도 필요함.
- 하반기는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각 국의 보호무역 심화,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 농산물 소비위축 등 수출 불안요소들이 다수 존재함.
- 수출대상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부, 관련기관, 수출업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1. 농가경제동향

- 2013년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이래 14년 1.0%, 15년 6.5%의 연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농가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 그동안 농업의 규모화·전문화가 소득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노령화 및 영세농의 증가는 평균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농가경제가 최근 다소나마 호전되고 있는 모습은 규모화된 전업농가가 소득 증가를 전인하는 한편 영세농가의 농외보조금, 논벼농가의 직불금이 포함된 이전소득 증가로 소규모 농가의 소득이 보전된 것으로 판단됨(KREI, 2016.6).
- 그간 농가소득의 오랜 정체는 시장개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의 산업적 요인과 함께 농업·농촌의 사회경제구조 변화 역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함(김미복·박성재, 2014).
 - 2000년대 들어서 농업의 규모화, 전문화, 겸업화와 동시에 농가 고령화, 영세농 집적 현상도 심화되어 소득양극화로 평균 농가소득이 정체됨.
 - 5ha 이상의 대규모 농가가 2000년 1.7%에서 2010년 3.4%로 증가하고, 농업외수입이 높은 2종 겸업농이 늘어나는 한편, 70세 이상 경영주가 최빈(最

* 본고는 「농정포커스 -제 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재구성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mbki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naewonoh@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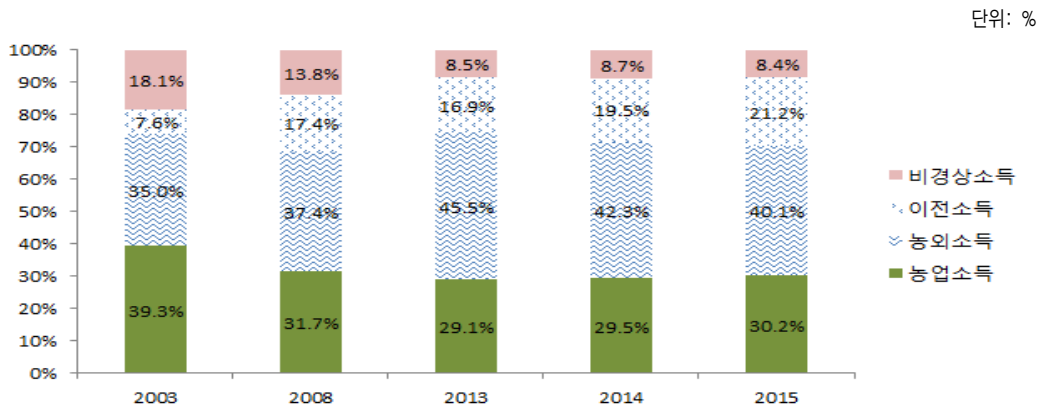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eshwang@krei.re.kr)

頻)치가 되는 고령화가 계속됨.

* 0.5ha 미만 영세농은 31.8%에서 40.1%로 증가

- '15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3,721만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 소득 증가분 226만 원 중 농업소득 증가액은 95만 원으로 42.0%를 차지하고, 이전소득 증가액은 109만 원으로 48.2%를 차지함.

그림 1. 농가소득 구성요소 비중 추이



- 그동안 농가소득을 견인하였던 농외소득은 최근 국가적 재난 여파, 국민경제 저성장 때문에 정체되어 2015년 농가의 농외소득은 1,4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는데 그침.
- 2012년까지 농업소득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동안 농외소득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음.
- 농외소득은 사업소득인 겸업소득과 급료수입이 포함된 사업외소득으로 나뉘는데 소규모 숙박, 음식점업이 포함된 겸업소득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음.

* 농외소득: 1,140만 원(08)→1,570만 원(13)→1,480만 원(14)→1,494만 원(15)

- 경기침체로 농외소득 증가폭이 미미한 반면, 정부지원이 포함된 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15.9% 증가하여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함.

- '15년 이전소득은 790만 원으로, '14년 682만 원 대비 15.9% 상승하여 상
승추세 지속('14년 증가율: 16.7%)
- 영농형태별로 보면, 축산농가 소득은 금액이 높을 뿐 아니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체 평균소득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 논벼농가 소득이 전년 대비 13.7% 증가하여 전체 평균 증가에 기여하였지
만, 논벼농가의 소득은 절대금액이 낮아 영농형태별 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
나고 있음.

표 1.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변화

	2013	2014	2015	'13~' 14증가율	'14~' 15증가율
논벼농가	23,325	22,500	25,588	-3.5%	13.7%
과수농가	34,352	34,662	34,039	0.9%	-1.8%
채소농가	29,125	25,718	27,001	-11.7%	5.0%
특작농가	21,081	19,265	15,281	-8.6%	-20.7%
화훼농가	21,878	27,983	26,981	27.9%	-3.6%
전작농가	20,122	23,528	23,576	16.9%	0.2%
축산농가	52,721	72,338	79,649	37.2%	10.1%
기타농가	46,113	57,136	72,133	23.9%	26.2%
2종 겸업	42,975	43,717	45,547	1.7%	4.2%
전체	34,524	34,950	37,215	1.2%	6.5%

- 명목 농가소득은 '05년 3천만 원 돌파 이후, '12년에 3천 1백만 원으로 소득정체가
장기화되었으나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농업소득은 '95년 1천만 원까지 증가하였다가 농가판매가격 정체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장기간 정체 혹은 감소하였으나 '12년
이후 다소 증가 추세임.
- 또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이 가파르게 감소하다 최근 다소 증가 추세

* 39.3%('03)→ 31.6%('08)→ 29.1%('13)→ 29.5%('14)→ 3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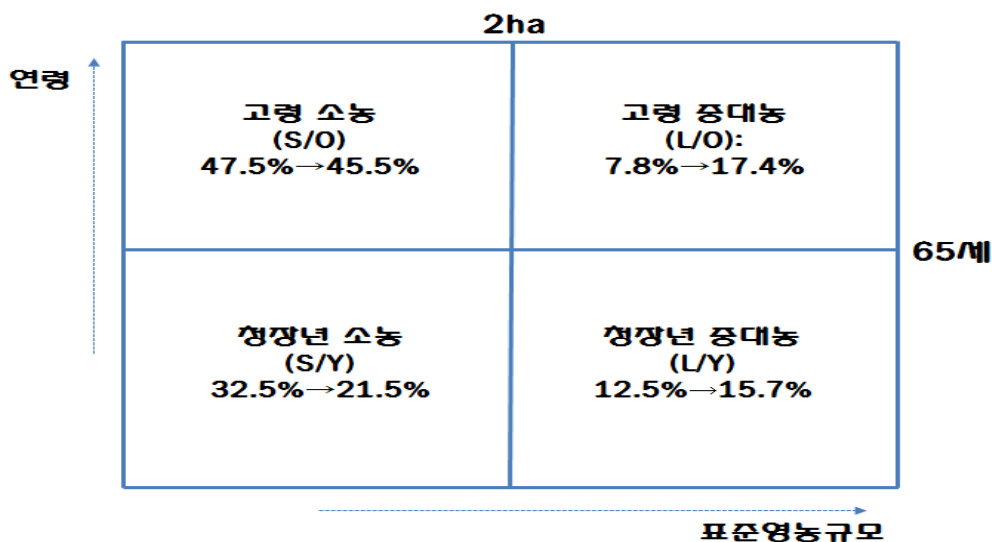
- '15년 농가소득 상승으로 그동안 계속 하락하던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완화됨.
 -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15년 소득 5,779만 원 대비 농가소득은 64.4%로, 가파르게 감소하다 '12년 이후 다소 증가 추세임.
 - * 76.4%('03)→ 65.2%('08)→ 57.6%('12)→ 61.5%('14)→ 64.4%('15)

2. 농가유형구분과 구조변화

- 농가성격에 따라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의 변화 추이가 다르기 때문에 농가유형별 소득구조의 변화 분석은 의미가 있음.
 - 품목별, 연령별, 규모별 평균소득의 변화는 통계청(2015) 등 기존의 자료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들 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찾기 위해 새로운 농가유형 구분과 소득 분석을 시도함.
 - 이번 분석에서는 연령 및 규모를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소득 구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추이를 분석하고자 함.
- 경영주 연령 65세와 표준영농규모 2ha를 기준으로 농가유형을 구분하였음.
 - 국민건강 수준 향상 및 기계화로 다수의 전업농이 65세까지는 이전의 경영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60세가 아닌 65세를 기준으로 하였음.
 - 표준영농규모는 농업의 자본집약화에 따른 축사, 온실 등 농업자본 관련 유형자산을 영농규모에 반영하도록 경지로 환산한 '규모' 개념임.
 - 축산, 시설농가는 경지규모가 작더라도 고소득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의 적용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벼, 채소, 과수, 축산 등 다양한 영농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단지 논, 밭의 경지면적만으로는 농가의 영농규모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으며, 농업용 고정자산(농업시설, 대동물, 대식물 등)도 영농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임.
- 기준에 따른 농가유형 구분은 <그림 2>에 도시한 것과 같음.
 - 그룹1(L/Y) 청장년 중대농: 평균 연령은 56세이고, 4~50대 농가가 75%를

- 차지함. 농업성장과 연계성이 높으며 전문농가으로 발전시켜야 할 그룹임.
- 그룹2(S/Y) 청장년 소농: 겸업형태 농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귀농 등 신규진입농, 1종 겸업, 2종 겸업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농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활동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그룹임.
 - 그룹3(S/O) 고령 소농: 우리 농업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가임. 평균 연령이 74세로 50%는 75세 이상 초고령농가이고, 미래영농기반이 취약한 은퇴직전의 계층임.
 - 그룹4(L/O) 고령 중대농: 비록 고령이지만 농업생산자원 측면에서는 아직도 비중이 높은 농가임. 이 그룹엔 주로 단작인 논벼농가가 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평균 연령은 71세인 은퇴를 앞둔 농가로 영농후계가 가능한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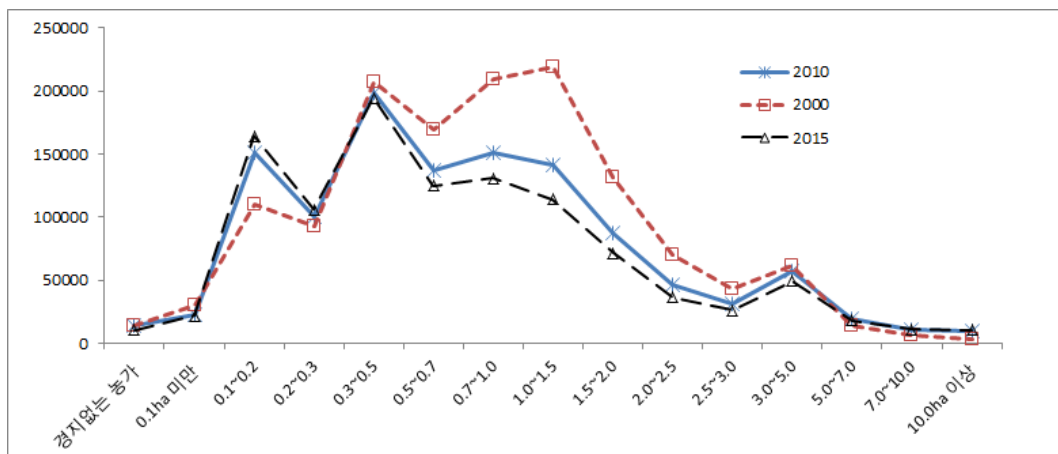
그림 2. 농가유형구분(표준영농규모/연령)



- 2010년과 2015년의 농가 유형구성을 살펴 보면, 청장년 중대농 수의 증가, 청장년 소농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 중대농의 급격한 증가로 농업구조변화가 잘 반영됨<표 2>.

- 고령 중대농의 증가는 농업의 고령화에 따라 청장년 중대농이 고령농이 된 부분과 청장년 소농이 영농규모를 확대해 중규모 이상 전업농가로의 이동이 결합된 것으로 보임.
- 중대규모 농가 비중이 2010년 20.3%에서 33.1%로 높아졌고, 65세 이상 농가 비중 역시 8%p 상승하여 우리 농업의 고령화, 규모화 추이를 나타냄.
- 특히 표준영농규모 2ha 미만이지만 청장년 농가인 S/Y 그룹은 2010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농업총조사 경지규모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1~3ha 구간의 농가수가 감소하고 양극화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청장년 소농 비중은 32.5%에서 21.5%로 낮아짐.

그림 3. 경지규모 분포의 변화(농업총조사)



자료: 김미복 · 박성재(2014) 수정인용

- 청장년중대농 그룹의 비중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증가율도 높아 농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청장년소농 그룹은 농가소득은 증가했지만, 이는 농외부분에서 기여한 것으로 농업소득 비중은 매우 미미함.

- 고령농가 중 소규모 농가는 농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이전소득 증가 등으로 농가소득이 보전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고령중대농 농가는 농업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농가소득 증가율은 가장 낮았음.

표 2. 농가유형 구조 변화

단위: 천 원, %

	비중		평균 농가소득			평균 농업소득		
	2010	2015	2010	2015	증가율	2010	2015	증가율
그룹1 청장년중대농 (L/Y)	12.5	15.7	58,500	69,800	19.3	30,300	36,600	20.8
그룹2 청장년소농 (S/Y)	32.5	21.5	38,000	44,100	16.1	8,830	5,900	-33.2
그룹3 고령소농 (S/O)	47.2	45.5	22,100	24,700	11.8	5,690	5,160	-9.3
그룹4 고령중대농 (L/O)	7.8	17.4	35,500	37,500	5.6	14,800	16,900	14.2

3.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실태와 과제

3.1 청장년 중대농(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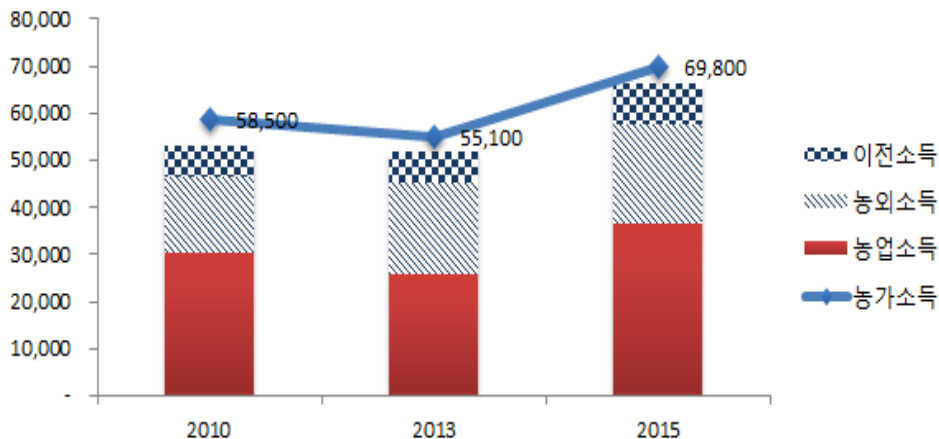
- 농업정책의 핵심 대상인 표준영농규모 2.0ha 이상, 65세 이하 청장년 중대농만을 한정하여 볼 때, 농가소득은 6,98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19.3% 상승하였음(실질 기준 12.1% 상승).
 - 이 그룹의 소득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농업소득으로 '15년 기준 3,660만 원으로 '10년 대비 20.8% 증가하여 농가소득 상승에 기여하고 있음(실질기준 13.5%).

* 농업소득 증가율: 4.0%('13)→ 11.7%('14)→ 27.5%('15)

-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에서 52.4%, 농외소득은 29.8%, 이전소득은 12.4%를 차지함.
- 청장년 중대농의 농가소득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농업소득 의존도가 52.4%로 높아, 농업성과 연계된 농가 유형임.
 - * 평균 농가의 농업소득 비중: 30.2%('15)
- 재해보험, 금리인하 등 경영안정 정책, 들녘경영체 육성, 시설현대화지원, 유통구조개선 정책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의 효과로 농업소득은 상승세를 보임.
- 원활한 자금조달이 중요한 그룹으로 정책금융 활성화 및 부실방지 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그림 4. 청장년 중대농(L/Y) 소득 구성

단위: 천 원, %



- 청장년중대농(L/Y) 그룹의 소득 상승은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룹 비중은 2010년 12.5%에서 2015년 15.7%로 증가
 - 경쟁력있는 선도농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 그룹의 농가수 증가는 주로 축산, 채소, 과수농가로 인한 것인데, 2010년에 비해 축산농가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과수, 채소농가가 다소 늘어남.

- 청장년중대농 그룹에서 농가소득이 2인이상 도시근로자가구소득보다 높은 가구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소득도 높아지고 있어 청장년 중대농 그룹의 경쟁력은 높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청장년 중대농 그룹에서 소득이 양극화되고,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이하 농가 역시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청장년, 중규모 이상 농가가 안정적으로 전문농가 그룹에 정착할 수 있는 투자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청장년중대농 그룹의 부채비율은 13%로 고령소농에 비해 4배이상 높고, 약 25%가 부채비율 20%가 넘는 등 경영위험이 높은 농가가 적지 않음.
 - '15년 청장년중대농 그룹 중에서 도시근로자가구소득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의 평균 영농규모는 5.7ha에 달해 동일표본인 '13년에 비해서도 0.5ha 정도 확대되었음.

표 4. 그룹별 평균 부채비율

구분	청장년중대농(L/Y)	청장년소농(S/Y)	고령소농(S/O)	고령중대농(L/O)
2015	0.13	0.10	0.03	0.05

3.2 청장년 소농(S/Y)

- 이 그룹의 농가소득은 '10년 대비 16.1% 상승한 4,410만 원이며 전업(1종 겸업농가 포함) 감소로 인한 농외소득의 증가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15년 기준 이 그룹의 농업소득 비중은 13.4%로, '10년 23.2%에서 크게 감소하였음. 반면, 농외소득 비중은 55.5%에서 67.6%로 증가하였고 이전소득도 다소 증가하여 525만 원으로 농업소득 516만 원과 비슷한 수준임.
- 농외소득은 사업소득인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으로 나뉘고, 사업외소득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됨.

- 청장년 소농의 농외소득 중 대부분인 81.8%는 사업외소득이며 농외임금이 75.0%이고 농업노임과 그 외 자본수입이 소액 포함됨.

* 사업외수입: 2,464만 원('15)

* 근로수입(농외임금): 2,240만 원('15), 근로수입(농업노임): 61만 원('15)

그림 5. 청장년 소농(S/Y) 소득 구성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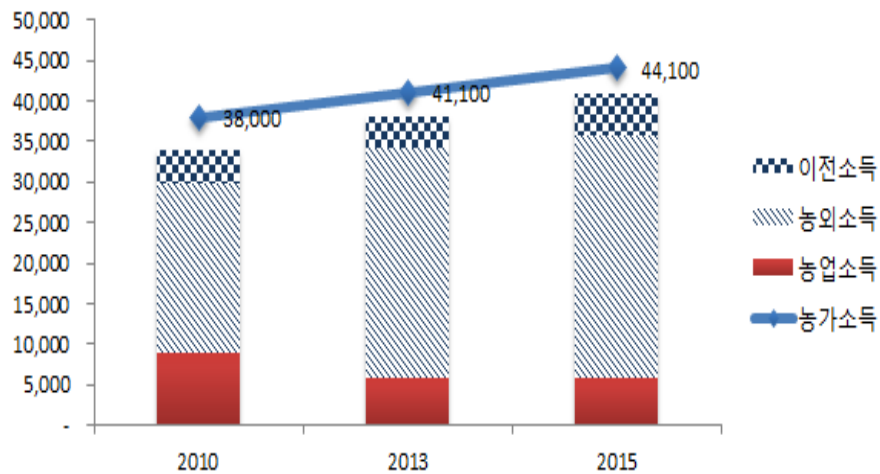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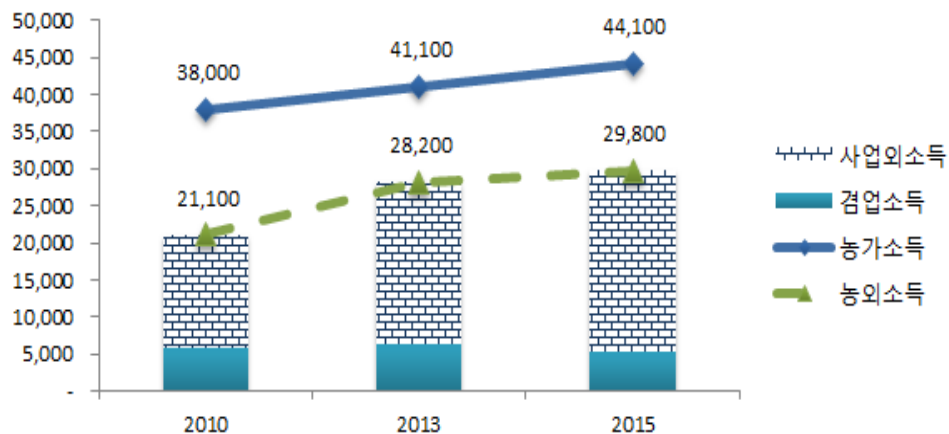


그림 6. 청장년 소농(S/Y) 농외소득 구성

단위: 천 원



- 청장년 소농 그룹은 주로 2종 겸업농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57.2%) '10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그룹에 속한 전업농가는 주로 채소농가인데 '10년 대비 감소하였음.

표 5. 청장년 소농(S/Y) 전·겸업별 농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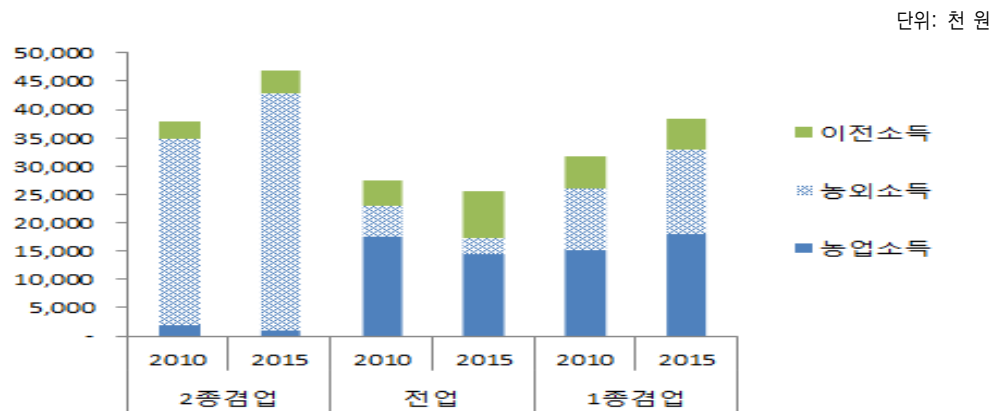
	2010		2015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전업	235	27.36	144	25.81
1종 겸업	237	27.59	95	17.03
2종 겸업	387	45.05	319	57.17
계	859	100	558	100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가 경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영주 혹은 가구원 중 일부는 농업 외 활동을 하면서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함.
 - 표준영농규모 2ha 미만, 65세 미만 그룹의 전업 및 1종 겸업농가가 크게 감소하였음(표 9. 참조). 1종 겸업농가는 가구원 중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사람이 있지만, 농업수입이 농외수입보다 많은 농가를 말하기 때문에 이들 농가수 감소는 2ha 미만 소규모에서는 영농활동이 주 소득원이 되기 어려움을 나타냄.
- 청장년 소농 그룹 중 농촌지역에서 고정일자리가 있는 2종 겸업농가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5,779만 원의 약 87%로 높은 편임. 1종 겸업농가의 경우에도 농외소득이 1,500만 원 수준으로 일자리의 유무가 총소득에 영향을 미침.
 - 2종 겸업농가의 소득은 '15년 5,030만 원으로 '10년에 비해 18.9%증가하였고 이들의 농외소득은 4,200만 원에 이룸(실질 11.8%).
 - 농외소득원이 있는 1종 겸업의 경우 농업·농외소득 증가로 5년 전에 비해 다소 상승해서 '15년 소득은 4,090만 원임.
 - 농사 외 다른 일에 종사하는 가구원이 없는 농가의 경우 '15년 소득 2,850만 원으로 '10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음.

* 청장년소농 그룹 농외임금: 1,360만 원('10)→ 2,010만 원('13)→2,180만 원('15)

- 현재 영농기반이 취약해 소득이 낮은 젊은 소규모 전업농가의 경우, 농외소득을 확대해 겸업농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부분적으로 귀농, 창업농 등 신규진입한 농가에 대해 규모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 기회가 필요함.
- 1종 겸업농가 소득 4,090만 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7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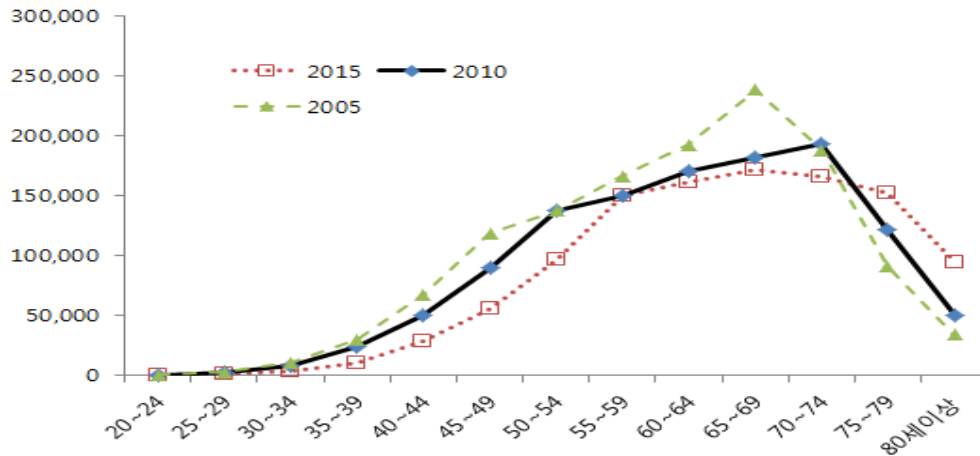
그림 7. 청장년 소농(S/Y) 전·겸업별 소득 구성



3.3 고령 소농(S/O)

- 2015년 농업총조사 잠정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38.4%로 2010년에 비해 6.7%p 증가하는 등 초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음.
- 농가 경영주 연령의 최빈치가 70세 이상으로 바뀜.
-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농가 비중 증가에 따라 평균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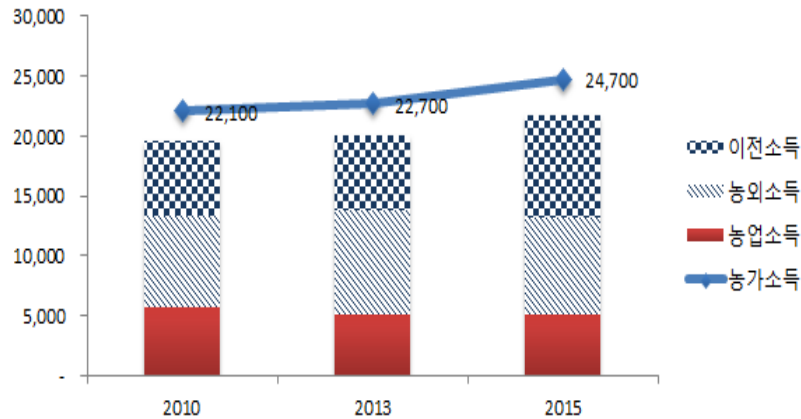
그림 8. 경영주 연령 분포의 변화



- 표준영농규모 2ha 미만, 65세 이상 고령소농 그룹은 농가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45.5%), 이들의 소득은 이전소득 상승으로 '10년 대비 11.8% 상승하였음(실질 기준 5.0%).
 - 농업소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장년 중대농과 달리 고령 소농 그룹은 '15년 기준 농업소득 20.9%, 농외소득 32.3%, 이전소득 34.8%로 구성되어 있음. 경조사금 등은 비경상소득이며, 분석에서는 제외함.
 - * 농업소득: 570만 원('10)→ 515만 원('13)→ 516만 원('15)
 - * 농외소득: 770만 원('10)→ 869만 원('13)→ 797만 원('15)
 - * 이전소득: 617만 원('10)→ 625만 원('13)→ 858만 원('15)
- 고령 소농의 농가소득 중 농업외보조금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복지지원정책 확대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 '15년 전체 농가의 농업외보조금은 556만 원으로 농가소득의 15%인 것에 비해 고령 소농의 농업외보조금은 690만 원으로 농가소득의 27.9%를 차지
 - * 고령소농의 농업외보조금 비중: 15.7%('10)→ 21.0%('13)→ 27.9%('15)
 - 농업외보조금은 연금, 실업수당, 기초노령연금, 영세민생활보조금, 장애인보조금, 산업재해보험급여 등이 포함

그림 9. 고령 소농(S/O) 소득 구성

단위: 천 원



- 고령소농 그룹이라 하더라도 복지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과 연계한 소득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경비율은 66.3%로 청장년 중대농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일부는 소규모 영농을 유지하고 있고, 대부지 비율이 24.2%인 것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은퇴 시기의 농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실질적 은퇴연령을 75세 정도로 보았을 때, 75세 미만 농가의 소득은 3,050만 원이고 농업소득은 약 20%를 차지함.
- 75세 미만 은퇴 이전 농가는 소규모 영농에 대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여 농업소득을 유지하거나, 농가의 소규모 겸업소득 및 단기근로 등 사업외소득을 확대하는 것이 소득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
 - 대규모 농업 투자가 어렵고, 농외 고정 취업이 어려운 고령농이므로, 지역 내 소규모 농업연계 사업이 강화되어야 함.
- 개별 농가의 경영 능력은 취약하므로 지역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 그룹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로컬푸드 활성화, 마을 단위 공동 6차산업화 정책 등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함.

표 6. 그룹별 자경 비율

단위: m², %

	고령소농 그룹		청장년중대농 그룹	
	평균 면적	비율	평균 면적	비율
자경	5,206	66.31)	17,633	41.31*
차용	2,652	33.71)	25,092	58.71**
대부	1,665	24.22)	991	5.32)

* 경작지(자경+차용)에 대한 비율

** 소유지(자경+대부)에 대한 비율

표 7. 연령·규모별 소득구조

단위: 천 원

	75세미만	75세이상	1ha이상*	1ha미만
농가소득	30,500	18,700	28,400	22,300
농업소득	6,150	4,130	8,542	2,921
농외소득	11,200	4,570	8,044	7,924
겸업소득	3,237	639	2,157	1,843
사업외소득	7,982	3,930	5,887	6,080
이전소득	9,610	7,500	8,363	8,729

* 1ha 이상 농가는 주로 논벼(31.2%), 채소, 과수농가

3.4 고령 중대농(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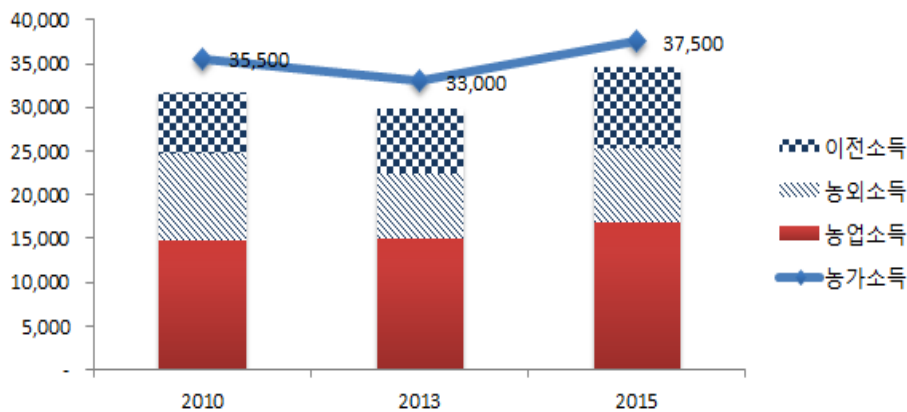
- 고령중대농 그룹에 속하는 농가는 주로 논벼농가로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2015년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4%로, 2010년 7.8%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 '15년 농가소득은 3,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 상승하였고, 농업소득 45.1%, 이전소득 24.8%, 농외소득 22.5%로 구성
 - 이 그룹의 평균 경지면적은 3.2ha로 청장년 소농 그룹 0.7ha에 비해 크지만, 농가 소득은 오히려 낮음.
 - 이 그룹의 경작면적 중 자경 비율은 66%로 네 그룹 중 가장 높음. 토지 등 농업생산자원은 고령중대농 그룹의 비중이 적지 않음.

- 이 그룹의 농가소득이 증가하여 전체 소득 증가에 기여하였음.

* 농가소득: 3,550만 원('10)→ 3,300만 원('13)→ 3,750만 원('15)

그림 10. 고령 중대농(L/O) 소득 구성

단위: 천 원



- 고령중대농 그룹은 농외소득이 14.0% 감소한 반면, 농업소득이 14.2% 증가하였고 이전소득이 '10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음. 특히 농업보조금이 2배 이상 증가하여 공적보조금 비중은 50% 이상 늘어났음.
 - 공적보조금에서 농업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지 않으나 직불금 확대로 증가하는 추세임.
 - * 반면 고령소농에서 해당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 기준 10% 수준
- 영농규모는 중규모 이상이지만 고령이기 때문에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 실제로 고령중대농 그룹의 농가소득은 전체 농가의 평균 수준이지만 생산성 측면에서는 취약함.
 - 논벼농가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젊은 농가와 비교해 볼 때, 토지생산성, 고정자본생산성 모두 낮게 나타남.
 - 채소농가의 경우, 그룹 간 차이가 확대됨을 알 수 있음.

- 농업생산자원 보유 비중이 높은 그룹이므로 조직화 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표 8. 논벼농가 생산성 비교

단위: 만 원, 원/m²

	고령중대농 그룹 논벼농가		청장년중대농 그룹 논벼농가	
	2010	2015	2010	2015
농업부가가치	1,820	2,500	4,340	6,310
토지생산성	671	717	1,187	995
고정자본생산성	606	665	1,021	932

표 9. 채소농가 생산성 비교

단위: 만 원, 원/m²

	고령중대농 그룹 채소농가		청장년중대농 그룹 채소농가	
	2010	2015	2010	2015
농업부가가치	2,580	3,380	5,830	7,070
토지생산성	691	1,179	1,922	2,276
고정자본생산성	751	1,065	1,652	2,003

- 또한 '15년 기준 고령중대농 그룹 농가 중 60%는 영농을 승계할 수 있는 40~50대 젊은 가구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농기반 유지 측면에서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이 그룹의 40%는 25~65세 가구원이 있는 농가임.
 - 실제로 젊은 가구원이 있는 농가의 평균소득은 4,520만 원으로 젊은 가구원이 없는 농가에 비해 약 1.4배 소득이 높음.
- 고령중대농 그룹 중 은퇴 직전으로 볼 수 있는 75세 이상 초고령 농가에서는 80% 이상이 영농 승계를 할 수 있는 가구원이 없어 후계 인력에 대한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4. 맺음말

- 농가경제는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장기간 농업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음. 2000년대 후반까지는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을 견인하였으나 농촌 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농외소득이 정체됨에 따라 농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업소득의 증가로 전문농가가 포함된 청장년 중대농의 소득 증가폭이 확대되고 공적보조금 등 이전소득의 증가로 농가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임.
- 경영주 연령과 영농규모를 기준으로 농가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규모화, 전문화 정책에 힘입어 청장년 중대농 비중이 5년 동안 3%p 증가하여 전체 농가의 15% 이상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소득증가율이 높아 농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고령화로 고령중대농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청장년 소농의 두드러진 감소세가 있어 이 그룹들에 대한 소득안정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청장년 중대농 그룹에서는 그간 구조개선 정책, 경쟁력강화 정책으로 성과가 있었으나 이 그룹을 규모화된 전문농가로 꾸준히 이끌기 위해서는 부채비율 20%가 넘는 경영위험농가를 포함한 경영안정대책이 필요함.
- 고령 소농 그룹에 대해서는 기초보장과 같은 복지정책의 강화, 소규모 산출물에 대한 안정적 판로 확보, 마을 공동 6차산업,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단위 정책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영농기반이 약한 청장년 소농 그룹은 농촌일자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농촌 사회 기반 유지를 위해 중요하나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바람직함.
- 농업생산기반이 있는 고령 중대농 그룹은 조직화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업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후계 승계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대책도 필요함.

ⓔ 01-2016-03

농업·농촌경제동향 2016 가을호 | 제19권 제3호 (통권73호)

등 록

인 쇄 2016. 11.

발 행 2016. 11.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빗가람로 601

전 화 061-820-2262 팩스 061-820-2409 <http://www.krei.re.kr>

인쇄소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